

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 힘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이웃으로서 베푸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3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9월 9일 (토) 제 164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 안에서 되레 하나 되게 한다!

CT, 허리케인 하비 피해에도 수재민들과 함께 맞서 이겨내는 휴스턴교회들 사역 보도

카테고리 4등급 슈퍼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주를 강타하면서 45만 명의 수재민 발생하고 피해액은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말을 지나면서 열대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느리게 이동하면서 폭우가 계속 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문을 닫았고 주요 도로와 주택, 사회기반시설이 침수돼 26만 명 이상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습한 이후, 연방정부나 FEMA, 주정부의 지원이나 복구에 한발 앞서, 이재민들에게 다가

가 아픔을 같이하며 희망을 꽃피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휴스턴 일대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임시 대피소 마련과 함께 긴급 구호 자원봉사단을 가동시키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그야말로 엄청난 물폭탄을 맞은 휴스턴 현지에서 생생하게 교회공동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구호 사역들을 보도한다(Houston Churches Fight Flooding After Harvey Cancels Services: Congregations take 'all ready but not yet' approach to Texas rains of biblical proportions).



엄청난 물폭탄을 맞은 휴스턴에서 지역 교회공동체들이 구호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 대형교회들이 밀집되어 있는 텍사스 휴스턴에 허리케인 하비가 던진 물폭탄은 주말에만 거의 9조 갤런을 넘어선다.

따라서 지난달 27일 휴스턴 다운타운에서 외곽에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 교회들에서는 페이스북에 설교가 담긴 예배 동영상을 보내거나 안전하게 있을 것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휴스턴 일대 모든 대형교회들(Second Baptist, Houston's First Baptist, Church Without Walls, Wheeler Avenue Baptist, and Woodlands Church)이 안전 예방책으로, 주일 예배를 취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떨어진 물폭탄의 위력은 엄청났다.

“우리 교회는 5번 예배가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데 모든 예배를 취소할 것이라고는 거의 상상도 안했다”면서, 크리스 시이 목사(Ecclesia 담임)는 “교인들에게 집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가능하면 주변 이웃들을 도우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랙 매트(Houston's First Baptist) 목사 역시 주말 내내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시간을 다 보냈다. 그는 “이번처럼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린 적이 없었습니다”라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비가 그칠 것을 간구”하는 동영상을 주일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렸다.

휴스턴의 크리스천들은 기도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교회를 대피처로, 물에 반절

정도 잠긴 차 안에서 운전자를 꺼내고, 지방화나 총회에 긴급 구호 요청을 보냈다.

특히 휴스턴 북부에 자리 잡은 교회들은 임시 대피처나 수재민들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동 교회들의 교인들은 수재민들이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생필품을 모아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밀려오는 수재민들이 너무 많아 생필품을 턱없이 부족하고, 자원봉사 인력도 역

부족이다.

그래서 교회공동체들은 구호 전략을 세웠다. 바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호만이 아닌 회복을 위해 연방정부나 총회 단위로부터의 물자나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3면으로 계속〉

“예방” 만이 최선의 대책이다!

컨버세이션, 핵폭발로 촉발되는 지구촌 악재 경고

“이제껏 세상에서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짐은 한반도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량살상무기를 떨어뜨리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다. 이에 북한 김정은은 제 6차 핵실험을 비밀리에 실행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 핵전쟁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방위 분석가들에 따르면 근년 들어 유럽과 남아시아에서도 핵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하지만 더 희망적인 변화도 있다. 지난 6월 뉴욕에서 122개국이 유엔핵무기 금지조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 ‘금지조약’에 따라 비준국가에선 핵무기가 불법이 된다. 다자간 군축을 향한 노력에 다시 시동을 거는 기회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 조약의 지지자들은 제한적인 국제적 핵전쟁도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파멸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컨버세이션’은 런던 퀸메리대학 글로벌공중보건학 교수, 데이빗 맥코이의 핵폭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기고(Even a ‘minor’ nuclear war would be an ecological disaster felt throughout the world)을 실었다.

생태계 파괴로 식량생산 급감, 대기근 발생 예측

실질적으로는 그 결과가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지난 3월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매티아스 이켄은 온라인 매체 컨버세이션에서 핵의 파괴력이 “크게 과장됐다”고 썼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와 대재앙 운운하는 표현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켄 연구원은 핵무기가 흔히 말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9메가톤(메가톤은 폭발력 측정 단위로 1메가톤은 TNT 폭약 100만톤에 상당한다)의 열핵폭탄이 미국 아칸소 주에 떨어진다 해도 주 전체 표면적의 0.2%만 파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구상에서 핵폭발이 2000건 이상 일어났는데도 인류 문명이 끝장나지 않았으며, 핵무기가 제거하는 위험을 완화하려면 그런 위험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 룬
은회근 목사

2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본 사 방 문
임형만 선교사

16면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론

교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은희곤 목사
(삼상교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사회 지도층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백년전쟁(1337-1453) 당시 영국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거센 공격을 막아내고자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곧이어 영국왕 '에드워드 3세' 앞에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수용하는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좋다. 모든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 처형당할 대표자 6명을 선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칼레의 시민들 중에 어느 한사람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칼레 시의 가장 부유했던 '유스타슈 생 피에르'였습니다. 그의 희생정신에 감격한 고위 관료와 부유층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 모두 7명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이튿날 가장 나중에 오는 1명이 남고 나머지 6명이 영국군 전역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날이 밝은 이튿날, 오직 피에르만이 나타나지 않았습다. 의아하게 여긴 6명이 피에르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7명 모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꿈틀거릴 그 1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그리고 누가 살 것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한 피에르가 스스로 먼저 그 1명이 되어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에 남은 6명은 담담하게 영국 왕 앞으로 나갔고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영국의 왕비 '필라파 드 에노'가 처형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임신중이었던 왕비는 왕에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어 자신의 벅찬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왕에게 간청해 결국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0여년 후 칼레시는 용감했던 시민 7명의 모습을 '오귀스트 로댕'에게 청동상을 의뢰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7명처럼 사회 고위층이 져야 할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높은 책임 의식의 집중적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부터 내가 맡은, 해야만 하는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한다면,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의 작은 헌신들이 함께 간다면, '있는 자, 가진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아픈 자, 눌린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의로운 세상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본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느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사11:6-7).

아주머니 한분이 시장 채소 가게 앞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 아주머니의 모습이지만, 이분은 대법관 출신의 국가 5부요인중 한분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부인 김문경 님입니다. 김문경 님은 지난해 남편이 대법관을 퇴임한 뒤부터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있는 동안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공직이 끝났으니 나도 뭐 좀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됐는데, 퇴직금 나온 거 다 밀어 넣었어요" 중앙선관위원장 퇴임을 앞둔 김 위원장도 여전히 대형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합니다. 2013년도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이 되었지만 대법관 출신이 행정부에 가서 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공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33년 법관생활, 공직생활에 재산이라곤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지만,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올바른 처신을 고민하는 그와 같은 남편을 묵묵히 인정하며 노년의 평범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부인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인터넷에서 퍼온 글).

이 부부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충만하다면, 그 향기로온 냄새가 널리 퍼져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pastor.eun@gmail.com

서구 개신교인, 아직도 카톨릭에 빙의돼 있다!

퓨리서치,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미/서구 신구교 교인 대상으로 설문 조사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이라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로마카톨릭교회와 작별하고 개신교의 시작을 알렸지만, 종교개혁은 여전히 '미완'이다. '개신교인의 옷을 입었지만, 아직도 카톨릭에 빙의하고 있는 교인들'이 과반수이상 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미국·서유럽의 개신교 및 가톨릭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After 500 Years, Reformation-Era Divisions Have Lost Much of Their Potency). 설문에는 '양 종교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 '종교개혁 구호를 구원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미국 개신교와 가톨릭 교인 5,198명, 서유럽 15개 국가 2만4,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로 각각 실시됐다.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상징되는 종교개혁 가치에 대한 설문결과는 충격적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답한 미국 개신교인은 46%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2%는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가톨릭의 전통적인 구원론이다.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신약의 말씀처럼, 오히려 종교개혁의 장본인인 루터의 고향 독일에서는 67%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답했고, 존 칼빈의 스위스에서는 57%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향, 네덜란드에서는 47%가 아직도 카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받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개신교에서만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77%만이 바로 '오직 믿음'만을 받아들이고 있고,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65%가 '오직 믿음'이 개신교를 있게 한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독일 개신교인 67%가 구원의 조건은 '선행' ...카톨릭 구원론 갖고 있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미 개신교인 46% 그쳐...52% '믿음과 선한 행위'

다. 퓨리서치는 "사실상 노르웨이를 제외한 서유럽 모든 국가들에서 '오직 믿음'은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로 분석해준다. 따라서 거의 유럽의 기독교, 카톨릭 교인들(75%)은 양 종교가 유사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를 정도다.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에서도 과반수이상(57%)가 양 종교의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에 무게 중심을 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양 종교가 동일하지는 않다고 답한다. 오히려 '개신교를 정의해보라'는 질문에 32%가 "카톨릭이 아닌 교회"라고, 그리고 12%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하는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퓨리서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루터의 계승자라고 정의한다. 60%가 성경에서 모든 종교적인 안내들을 받을 수 있고, 70%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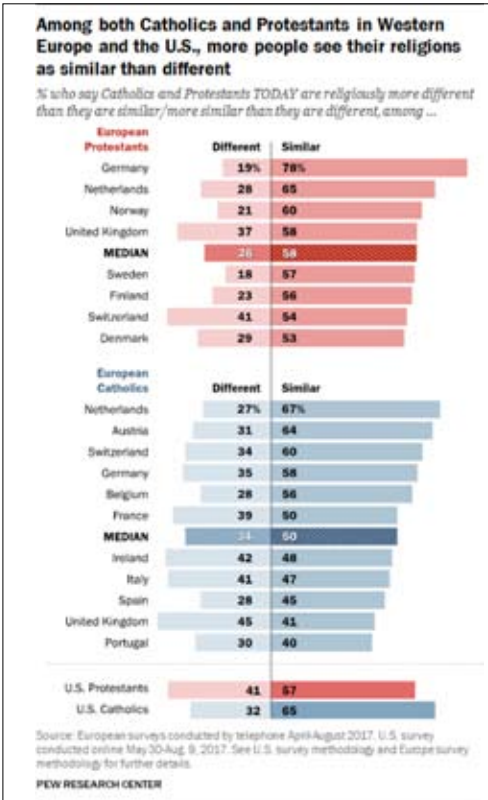
여기에 44%는 동시에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을 믿고 있는 데, 이 수치는 흑인 개신교인들(19%)이나 백인 주류교단 교인들(20%)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카톨릭의 '연속설'을 받

아들이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4%에 불과하다. 반면에, 31%의 백인 주류교단 교인들이나 47%의 흑인 개신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주일 예배에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더욱 더 종교개혁의 2가지 가치,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에 근접해 있다. 80%가 신앙 즉 청의를 믿고 있고, 68%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59%가 2가지를 믿고, 86%는 연속설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인 복음주의자들(75%)은 미국인 평균보다 '종교개혁'이 바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온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을 묻는 질문에 21%가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를 응답했고, 7%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대답했다.



퓨리서치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결론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요구한 개혁(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의 핵심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며, 개혁의 태도는 창조가 아니라 회개였다.

즉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것의 창조와 확립이 아니라 성경적인 옛것의 갱신과 재확립이다.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회개의 요청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회개 즉 성경적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교회갱신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교회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재 갱신하고 개혁해나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루터가 500년 전 비텐베르 성당에, 면죄부 판매를 일삼는 가톨릭교회에 95개 반박문을 게시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장: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내선) /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0(편집국) /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하나님 안에서 되레 하나 되게 한다

<1면에서 계속>

현재 휴스턴 일대 9개 교회들에서 이재민들이 다른 대피처로 옮기기 전에 기거할 수 있는 임시 대피처로 사용되고 있는데, 역시 역부족일 정도로, 생필품이나 자원봉사인력이 태부족이다. 그래서 교회들은 일제히 웹사이트를 가동, 구호 요청을 받고, 자원봉사자들을 구하며 도네이션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항상 교회공동체는 FEMA와 같은 연방기관이 공식적으로 구호에 나서기 전에 먼저 수재나 화염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해왔다. 실제로, 미 재난대비 자원봉사단체 모임(National VOAD)에만 50개 교단 이상이 가입돼 있어, 한마디로 FEMA가 신앙을 기반으로 한 기관(Faith-based FEMA)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우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이미 '사마리아인의 지갑'들이 재난 현장에 도착해 현지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있고, 성교회에서는 영적 케어팀과 함께 당장 가옥 수리에 도움이 되는 홈디도 카드를 나눠주면서 목회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성교회에서는 지난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가

갈바스톤을 덮쳐 피해가 난후 지금까지 150채 이상의 가옥들을 재건해 오고 있다.



결론으로, 이제 교회공동체는 재난 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위로자임과 동시에 구호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다. 2005년 카트리나 상륙 때부터 실행하고 있는 구호 사역의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로, 이번 허리케인 하비에 응전하고 있다.

휘튼대학 인도주의적 재난 대처 연구소의 제이미 아텐 소장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의 재난 대처 팀을 말해준다. 즉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와 같은 천재를 만났을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적 생존 지혜다. "재난에서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느껴져야 한다. 바로 영적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천재가 주는 고통이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핵무기에 대한 이런 연구원의 입장은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재앙과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거론하는 더 극적인 시각과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면 그런 종말론의 근거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우려는 핵폭발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조사한 최근의 리서치에 근거한다. 가장 많이 연구된 시나리오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핵전쟁이다. 여기서는 히로시마 규모의 핵탄두(현대적인 기준으로는 소형) 100개가 주로 도시 지역에서 폭발한다고 가정한다. 많은 분석가는 양국 간에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실제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양국이 보유한 무기를 합치면 핵탄두 220여 개에 상당한다.

서로 핵폭탄을 주고받을 경우 폭발·화재·방사선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한 주 내에 약 2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재앙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다.

그러나 핵폭탄이 터지면 또한 넓은 지역에 걸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량의 재와 잔해가 묻혀져 성층권으로 올라간다. 인도-파키스탄 핵전쟁 시나리오에선 최대 650만톤의 재가 상층대기로 상승할 수 있다. 햇빛을 차단해 지구 전체적으로 지상기온과 강수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그 영향이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생태계 파괴는 계속해서 글로벌 식량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은 10년 동안 평균 12% 감

소하게 된다. 중국에선 10년 동안 쌀 17%, 옥수수 16%, 겨울밀 31%씩 생산량이 줄어든다. 세계 전체 곡물 비축량이 전 세계 소비량 기준으로 100일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약 20억 명이 기근 위험에 처하게 된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북 간 핵 대결 피해는 그보다 작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생태계 피해는 여러 해 동안 전 세계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미-북간



핵 대결이 벌어지면 세계의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도 핵 충돌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러시아 간 대규모 핵전쟁의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하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는 대부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10-50배 더 강력하다. 양국의 전략핵무기(전쟁터에 넘어 인프라 또는 도시 공격용)가 동원되는 전쟁에선 약 1억5000톤의 재가 상층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럴 경우 지구 기온이 8°C 떨어진다. '핵겨울' 시나리오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식량생산이

중단되고 인류가 대부분 아사할 수 있다.

이런 연구원은 미-러 간 제한적인 국지적 핵 충돌이나 전면전 모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위험을 설득력 있게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두 시나리오 모두 실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서로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계속 큰소리치는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이 적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핵 역지력 독트린 이 큰 위험성을 지닌 도박이라는 점이다. 핵무기는 테러행위로 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해양 산성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항생제 내성과의 싸움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의료·공중보건 기구들이 핵무기 불법화 운동을 전개해온 까닭이다. 재앙을 초래하거나 인류 생존을 위협하려면 얼마나 많은 핵폭탄이 터져야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폭발이 일어날 위험과는 상관없이 이런 끔찍하고 위험한 무기에 관한 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격언을 계속 가슴 속에 새겨둬야 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헌금생활(상)

헌금생활, 감사가 그 바탕

필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은혜로 여인 삶이었고,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적인 삶이었다. 목회를 내려놓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감사였고 은혜로 받은 복된 삶이었다. 필자의 모바일 메신저를 열면 '감사일 뿐입니다'라는 일곱 글자가 화면을 채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러 차례 되풀이한 얘기지만 필자는 가난한 전도자의 아들이었던 탓에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세 살 때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편모, 가난, 고독과 함께 유년기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필자가 듣고 자란 어머니의 기도어는 "아버지, 감사합니다"였다. 그 당시 홀로된 어머니와 필자의 삶은 '감사합니다' 보다는 "너무합니다"여야 했고, 핍계와 구실을 찾아 하나님 곁을 떠나야 하는 각박한 삶이었다.

어린 필자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가난과 고독의 누더기를 걸친 불쌍한 과부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곤 했다. 이러한 감사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철든 뒤였지만 어머니의 감사기도는 어린 소년의 삶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버팀목이 되었다.

목회란 감사와 불평의 갈림길에서 갈 곳을 선택해야 하는 순례자의 삶이다.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는 사연이 많고 말이 많다. 그리고 일생을 그늘진 목회로 일관한다.

어느 목회나 명과 암은 있기 마련이다. 명을 바라보면 밝고 환한 길이 보이고, 암을 바라보면 길이 막히고 보이는 게 없다. 그 길엔 원망과 불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팡이 터진다. 이런 결코 바람직한 목회자의 길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 집단적 저주로 광야에서 사체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가르침

필자의 유소년 시절, 하나님께 드릴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배운 것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 외에 부정직한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는 늘 어린 자식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도 없었고 방법도 모른 채 일방적 기도로 어린 필

자를 조이곤 했다.

정직에 대한 어머니의 입장은 단호했다. 필자가 살던 시골 동네엔 삼거리 길이 있었고 구멍가게가 있었다. 지금은 동네마다 마켓이 있고 마트가 있지만 그 당시엔 그 가게가 백화점이었고 슈퍼마켓이었다. 과자, 과일, 북어, 미역, 멸치 그리고 생필품들이 만지를 뒤집어쓴 채 주인을 기다리는 가게였다. 그러나 동네 아이들의 관심은 목판에 쌓여있는 왕사탕이었다. 아이들은 눈감사탕이라고 불렀다. 왕설탕으로 범벅된 사탕은 한 알에 5환이었다.

어머니는 목판 장사로 번 돈으로 가장 깨끗한 돈 10환을 주일학교에 낼 헌금으로 주셨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들과 어울려 사탕을 사 먹기로 작당하고 가게를 찾아가다. 돈 없는 사람은 헌금으로 사탕을 사고 남은 돈으로 헌금한다는 모의에 필자가 가담했다. 그날 그 왕사탕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두렵고 떨렸지만 입 안을 가득 채운 그 맛과 비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 위에 일어났다. 한끼밖에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아까워 빨아 먹던 사탕을 한 종이 에 싼 후 은밀한 곳에 감춰 두었다. 그 당시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은 장로님의 따님이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출석을 부르면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성경구절을 암송했다. 그리고 헌금액수를 출석간에 기록하고 전도자 수를 함께 기록했다. 그러니까 출석, 헌금, 인도가 한눈에 드러나는 계산판과 같았다.

문제는 집에서 벌어졌다. 방 안을 청소하던 어머니가 숨겨 둔 사탕을 발견한 것이다. '웬 사탕 혹시 헌금으로?' 곧장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출석부를 감사한 어머니가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헌금을 덜 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성난 어머니의 표정과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세 개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종아리 건어라." "엄마, 왜 그래?"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하는데 헌금 잘라서 사탕을 사 먹어?"

지금은 부모도 교사도 체벌이 부자유스럽지만 그 당시엔 이라고저러고 이유를 댈 수 없었다. 필자는 그날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다. 울어도 안 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되고, 다신 안하겠다고 엄살을 떨어도 안 되었다. 솔직히 어린 마음에 이토록 혹독하게 자식을 매질하는 이 여인이 친어머니인가 의심하도록 매를 맞았다. 그날 저녁은 밥도 못 먹고 서럽고 아파서 울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한참 뒤 가슴이 조이는 답답함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두 눈에 들어찼다.

iamcspark@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오딧(audit)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래전, 밴쿠버 리젠트신학교에 서 청강(오딧팅, auditing)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 근처에 살면서 주중에는 청강생(오디터, auditor)으로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한인교회를 임시 담임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딧을 해보니 오디터가 갖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생보다 수업료가 적습

니다. 과제물과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유명한 교수의 수업을 참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각해도 교수에게 찍히지 않고, 아예 수업을 송두리째 빼먹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어느 시점에 수업을 그만두어도 패널티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배움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배움에 부담이 없다는 것이 과연 장점일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오디터들은 대체로 수업에 대한 열의가 없어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과제물과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 강의가 재미없으면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입 막으며 하품하다가 졸음 마귀 쫓아내느라 바쁩니다. 연습과 복습을 하지 않으면서 특하면 수업을 빼먹으니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식 학점을 받지 못하고, 학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모범적인 오디터는 못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핑계로 여러 번 수업을 빼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수업을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재미(?)가 붙었습니다. 밴쿠버에 일년 있는 동안, 첫 학기는 3과목 청강을 신청했다가

1과목만 마쳤고, 두 번째 학기에는 아예 거주지를 교회 근처로 옮기고 교회사역에 몰입하면서 신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아마 LA에서 일하면서 멀리 있는 남편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제 아내는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렵게 얻은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내린 결론은 배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나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면 청강은 시간과 돈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성숙학교에도 오디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배울 많은 기회가 있지만, 몇몇 훈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출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기회는 많지만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참 자유롭고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영

적 오디터들이 늘어갑니다. 영적 오디터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멀리하고 과제 부담이 없는 성경공부나 속성세미나를 선호합니다. 부담 없이 주일 예배에 앉아 말씀을 청강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 없이 예배를 빠집니다.

오랜 세월을 영적 오디터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들은 것은 많아서 머리는 커졌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없 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맞보아 알지 못합니다. 체계적으로 말씀 훈련의 부재로 오래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미비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금세 낙심하며, 조금 섬세한 일이 생겨도 시험에 빠집니다. 신학교 오딧(청강)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오딧은 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와 훈련에 오디터로 참석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학위를 위하여 공부하

듯,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올인하여 말씀공부를 하시고 또한 제자훈련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는 성숙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딧(audit)과 오디터(auditor)에는 '청강'과 '청강생' 이외에 '감사'와 '감사관'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실례를 조사하여 그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일입니다. 모든 장부를 자세히 살피는 재무, 혹은 사무 감사는 받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생도 '오딧'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오디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딧'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오딧'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푸/른/초/장

권영국 목사

(대흥교회)



창세기 33장의 말씀은 20여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20여 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한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동생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형 에서를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뒤로는 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경계선을 긋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고, 앞으로는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앞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이

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창33:10).

물론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

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인데, 만나기가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

다. 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4:3-4). 20년간 쉽 없이 품었던 살기도 “형제를 왕처럼 높임”에 모든 분노와 살기를 다 녹였습니다.

1.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

창세기 33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 펼쳐져있는 두려움과 난관의 문제”에 대한 것입

니.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야만했던 근본적 이유는 “형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그런데 하란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

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한번도 잊지 않으셨고”,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을 동원해서 하란 땅에서 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하였고,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와의 화해와 감동의 장면을 다 마련하셨지만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갈 때에, 모든

다니 레인 버그&하워드 휴즈 의학 연구소는 재미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재미 집단은 보통 수천수만 마리의 여왕개미 한 마리를 중심으로 집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여왕개미는 다른 개미들에 비해 크기도 몇 배 이상 크고, 수명도 10배 이상 길게 삽니다. 여왕개미라는 것은 날 때부터 여왕개미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왕개미가 죽어나 없어지게 되면 그 집단은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괴멸되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죽게 되면 신속하게 일개미 가운데 여왕개미를 선택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일개미가 여왕개미로 임명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몸집도 성장하게 되고, 수명도 10배 이상 길어지게 되고, 알을 낳는 여왕개미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집프 개미라고 부릅니다. 단지 개미의 세계에서 임명한 것뿐인데, 또 하나의 일개미가 이제 스스로 “여왕개미”라고 생각만 바꾸었을 뿐인데, 실제적인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는 “텔로메라제”를 만드는 유전자와 SIRT 1 단백질을 만드는 두 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뀌어도 신체적으로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구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5면으로 계속)

야곱의 만족과 에서의 만족

(창세기 33장 1-11절)

다. 그러나 화해하기까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였던 자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형님을 높였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3절) 당시 몸을 일곱 번 굽혔다는 것은 “텔 엘 아마르나 석판”에 의하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항상 일곱 번 절을 올렸다고 한 것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왕과 같이 높이고, 자신은 종처럼 철저히 낮추어서 맞이

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10).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5:5-6).

또 형제를 높이고 귀히 여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캄캄한 현실에 대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생명의 길로 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현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박한 현실로 몰고 가셔서 새로운 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뉴욕 의과대학의 생화학 교수인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최근 한국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단순히 말세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이곳 이민사회까지 들러오는 경보사인이 많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아도 자녀들의 문제가 걸립돌이 되는 것을 본다. 물론, 인생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 합력해서 신을 이루어가지만,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은 남는 법이다.

가르치지 못하는 권세 없는 부모

오늘날 자녀들에게 부모는 권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각 가정마다 독특한 나름의 자녀들 교육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

준 고유한 축복과 은혜, 새벽기도와 철야예배, 기도원의 영성을 가르치고 누리게 함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내가 한국인인이상 전혀 미국교회가 부러울 이유도 없고, 언어를 넘어서는 한국인의 영성을 포기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족할지라도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그 자녀는 훗날 더욱 부모의 말에 순복하며 그 권세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과 교회의 연결된 가르침

교회교육에 있어서도 가르침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게 된다. 부모와 자녀, 한 가족이 함께 보고 듣고 같은 신앙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좋은 학교를 보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본다.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고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인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불행인가? 그런 자녀와 부모 모두의 공동의 불행이다. 그러나 우선적인 책임의 문제는 그 부모에게 돌아간다. 문제 아이를 보면, 그 이면에 문제부모가 존재하는 것을 본다.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을 못해도 상관없다는 신앙의 가르침이 부재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말씀의 배움과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와 실력을 다 엮어두어도 한순간에 가장 가까운 혈육인 부모에게까지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부지런히 기본을 가르침

유명한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한때 유명한 가수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아이였다. 충분히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환경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참 훌륭하게 자랐는데, 그 교육법이 무엇이었나는 질문을 했다. 내용인즉, 하루는 집 아파트에 들어서는 데 아이가 경비아저씨에게 인사를 안하더라는 것이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5살난 아이를 집어던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앞으로 단 하루만 빨리 태어나도 네 형이야!” 얼마나 교육에 신경을 썼겠나? 그러나 이것은 무슨 특별히 대단한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들교회)



권세있는 부모, 존귀한 자녀

-스승도 부모도 위, 아래도 없는 시대

적인 원인을 말하려면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낳고 먹이고 키울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못함으로 스스로 권세를 포기하는 꼴이 되고만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어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사하고 몸을 추스린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 그러나 말씀에 성숙함이 덜할수록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 배웠지만 배운 바가 없고 자신을 가르친 스승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니, 그와 내가 이런들 저런들 상관아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부모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었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응당 순종함이 옳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다. 세상이 자기 마음에 만족할 만큼 다해주는 부모도 드물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사랑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을 가르쳐준 부모,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권세, 그것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선배목사님 한분이 자신의 목회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 딸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하면서 미국교회를 출석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편한 언어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성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의 목회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 안에서만 자라게 한 것에 대해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했다. 자신들이 편한 언어로 나온 환경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었다. 부모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필자의 표현은, ‘후회하시거나 미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였다.

아버지인 내가 못났다고, 이웃집 잘난 아저씨에게 내 아이를 맡기겠는가? 아니다.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지 못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어도, 신앙컬러가 다르고 부모의 신앙유산을 전수할 수 없도록 타락해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족하여도 데리고 살면서, 남의 집 벤츠 부러워 말고 티코를 타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은가?

영어권에서 자란 2세대들이 자란 후에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어만 쓰고, 미국에 산다고 미국식만을 주장한다면 과연 그 마지막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 이후에 나타나는 후세대들이 영적실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잘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 열심히 예배에 집중케 하고 새벽기도도 가르치고 통성 기도도 가르치고, 2세들을 영적거목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총동원시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2세대에게 하나님제일주의-신앙제일주의를 가르침으로, 2세들을 영적 거목으로 만들고 다듬어가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부모와 교회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부모와 교회는 그 풍성한 신앙의 유산과 유업을 잘 계승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자세와 태도를 가르침

무엇보다 자세와 태도를 훈련하고 가르쳐야 한다.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훈련과 가르침이 더욱 중요하다. 오래전 한국에서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격분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을 기억한다. 17살 난 고등학생이 아파트 자기 집 거실에서 “엄마가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김밥을 왜 드셨느냐”고 따지다 꾸지람을 듣자 아버지를 부엌에 던진 흉기로 복부 등 9군데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실직한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서 자주 꾸지람을 해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흥기를 들게 됐다는 것이다. 공부 못하는 불량 학생이 아니고 우등생 성적을 가진 아이였다고 한다.

무서운 세상임을 알게 한다. 자기를 낳아 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무엇이 그토록 그를 자극하였다고 흉기로 죽이기까지 하는냐는 것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훈련과 가르침이 필요

좀 더 확장해보면, 이것은 비단 부모-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시대는 스승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서라도 무법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다. 누구의 불행인가? 가장 불행한 이는 무법한 자 그 자신 일 것이며, 그 부모 그 가정과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다.

자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라고, 교역자들에게 당부한다. 어른을 보면 손만 바짝 들고 하이(HI)가 아니라, 머리 숙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도록 훈련하고 존댓말로 가르치라라고 한다. 이민사회에 잘 맞지 않는 말일지 몰라도 형, 누나, 오빠 등의 호칭을 불러 부르도록 강조한다. 존귀한 자로서 몸에 배여야 할 예범이기에 그러하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대한 권세가 없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맞이하고 인사를 해야 함에도 마치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가 잠시 들른 것처럼 무관심해 한다. 당연히 야단 맞을 일임에도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타협이 된 것 같다.

교회에서 주일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보고도 인사하지 않으면 다가가서 가르친다. “애들아 내가 목사님이야.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에게는 인사하는 거구나’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본다. 이들이 자라서 훗날에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 자세를 달리할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도록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부분이다. 교회는 教會이다.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성경 그대로 태도와 자세의 그릇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곳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공급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벧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2. 만족한 인생

야곱과 에서가 눈물로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한 후에 에서가 물었던 것은 야곱이 주려고 했던 많은 재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가족 재산을 두 배로 나누었습니다. 1차 선물은 좁약하고 비실대는 것으로... 2차 선물은 탄실한 가족들로 형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 형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전혀 동생의 가족 재산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오렌지카운티의 어느 집사입니다. 과거 교회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 입은 상처로 인해 몇 년이 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까지 나타나 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렌지카운티 플라센티아에서 Lee.

A: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속에서 부딪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믿는 성도나 사회에서 불신자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원만하고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성숙입니다. 혹시 과거에 남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상대방을 찾아가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입은 것은 즉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혈의 피로 씻고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14-21절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말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과 복수심입니다. 사람이 미움의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논리를 초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 성령충만으로만 가능

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미움 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지만 미움은 파괴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마음에 지뢰를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심을 유발시킵니다. 그것은 사탄이 심어놓는 가라지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자신입니다. 미움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독과 같습니다. 미워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파괴되고 얼굴의 근육이 굳어집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살벌합니다. 전투적이고 방어적입니다. 미움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줍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만일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복수할 능력이 없으면 혼자 밤에 읊니다. 한이 쌓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저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남치를 당하여 사창가에 팔렸습니다.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발을 뺀고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딸을 파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나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나의 결혼을 파괴하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핍박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본능으로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으로 실천하기 힘들고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충만, 성령충만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잘 안되고 힘들지만 자주 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만족은 “많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에 만족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야곱이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많은 것”이 기준이 되어 늘 허덕이는 삶이 되지 말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누리는 축복과 기쁨의 근거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그러하면 이루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살다가 재산을 잃었다고, 명예를 잃었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세상 다 산사람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은 기준 “많은 것”에 만족의 기준을 두면 인생은 실망할 일 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모든 것”에 만족의 기준을 둡시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함없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revdkwon@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란의 브라후이(BRAHUI)



과 키스탄에 230만의 브라후이 인종의 다수가 사는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을 따라 이란 동남부에 거주하는 브라후이족은 15,000명 정도다. 브라후이족은 그들의 가족 때를 위해 목초지와 물을 찾아 종종 국경을 넘나들기도 한다. 일부 부족들은 수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살아 지역을 옮

겨 이사해서 살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생활을 반복하기도 한다. 브라후이족은 1600년대에 권력을 잡기 위해 힌두 왕조를 전복시켰다. 1700년대 나시르 칸(Nasir Khan) 시대에 그 연합체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브라후이인들은 29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8부족이 부라후이의 진짜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브라후이족은 그들이 브라후이디어(Brahuidi)라고 불리는 드라비다어(Dravidian langu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웃인 푸쉬툰인(Pushtun), 발루치인(Baluchi)과 구별된다. 언어학자들

은 이 브라후이족이 남부 인도의 드라비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1000마일이나 떨어져 살면서 어떻게 관련됐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삶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브라후이족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브라후이족 대부분은 주로 유목생활을 하며 그들의 가족 때를 위한 물, 적절한 온도, 강우, 목초지를 따라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를 이동한다. 이들은 45마일 이상 떨어진 우물들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이동하기도 한다. 고산지에서의 겨울은 얼음이 얼고 춥기 때문에 겨울에 부라후이족은 평야에서 산다. 이들은 2-3월에 새끼 양들이 태어난 후에만 산지로 간다.

브라후이족에게는 복수의 법 이외에는 법이 없다고 하며, 강한 사막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으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유년시절부터 이들은 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저항력이 점차 커진다. 브라후이 양치기들은 그들의 가사 일을 협력하기 위해 "칼크(khalks)"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각 칼크는 상주하면서 일하는 직업적인 한명의 양치기와 한 무리의 양떼로 구성된다. 이 상주 양치기(resident shepherd)는 양을 500마리까지 담당한다. 이것으로 인해 아이를 포함한 남자들이 밀수확을 위한 마을 농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후이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상주 양치기는 남자들을 시켜서 가축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다른 브라후이들과 야영지의 위치나 양떼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칼크"의 이용을 인해 브라후이족은 전문적인 양치기가 됐다. 이들은 양들을 함께 방목할 수 있는 최적 숫자를 알아내고, 양들이 숫

자가 적은 조건에서 흠어져 돌아다닐 때 편안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의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는 양치기는 그들을 나눠서 새로운 "칼크"를 형성하기 위한 천막집을 만들어 이동한다.

결혼은 가족 내에서 종매로 이루어진다. 가끔 친척이 아닌 경우에도 사랑하는 두 사람의 희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쪽의 사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나,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이 관습이 제한받곤 한다. 이혼은 브라후이족에서 거의 없다.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결혼한 아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산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형제들은 장자의 통솔 아래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산다.

부족(The tribe)은 브라후이족의 정치적인 기본단위다. 부족들은

부자유승계(patrilineal descent)와 정치적 연합에 그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신앙

대부분의 브라후이족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기도, 금식, 자선,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라는 고백, 메카로의 순례여행)에 충실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한 선교단체가 이란의 브라후이족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이들에게는 중보기도와 더 많은 복음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들의 거친 유목민적인 생활양식에 기꺼이 적응해 이들 사이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트랜스젠더 복무금지' 정책도 소송 유발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란 속에 추진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입대 금지 정책이 소송에 휘말렸다.

미 인권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28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정부가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했으며,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도 금지했다. 다만 현역 트랜스젠더 병력의 복무 유지 여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이 지침은 군뿐 아니라 국토안보부와 해안경비대에도 적용된다. 매티스 장관은 향후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트위터를 통해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들조차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불췌 '모닝 트윗'으로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낳았다.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은 2천500명에서 최대 7천 명으로 추정돼, 만약 이들의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 기독교 지도자들, '내쉬빌 선언문' 발표

제임스 패커, 프랜시스 찬 등을 포함한 미 복음주의 기독교 리더들의 모임에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시대의 정신(the spirit of the age)과 맞서고 '폐허가 되려 작정하고 달려드는 듯한(bent on ruin)' 세상에서 문화에 대적하는 증인으로써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쉬빌 선언문(The Nashville Statement)'으로 지난 29일 발표된 이 선언문은 성(性) 이슈에 대한 평등주의, 페미니즘, 가부장적 관점보다 보완적인(complementarian) 관점을 옹호하는 복음주의 단체인 웨인 그루넬과 존 파이퍼, 제임스 벡 등이 관계된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심의회(CBMW, 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와 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와 남침례회 윤리 및 종교자유 위원회가 공동으로 내놓았다.

이 선언문은 최근 수년간 정치는 물론 교회에서도 전면에 오른 성, 특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관련해 서구 사회는 물론 교회에까지 소용돌이 치고 있는 메시지들과 관련, 서구 사회가 현재 처한 현실에 응답하는 서문과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언문은 서문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21세기의 시작에서 자신들이 역사적인 전한기를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구문화가 점점 더 포스트-기독교(post-Christian,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탈피하려는 현상)으로, 세속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대안적 세계관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 문제, 개인적 세계관, 이데올로기, 종교운동, 사회 등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우위가 상실되고, 기독교의 언어와 가정에 뿌리를 두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화 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대한 개정이 시작되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정신에 의해 더 이상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아름다움을 점점



더 알리고 하거나 기뻐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살럿 인근의 복음주의 신학대인 남침례회 산하 '서던 복음주의 신학대' 총장이자 이 선언문의 최초 서명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랜드는 크리스천포스트에 "인간은 무엇이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시대의 거대한 윤리적 문제다.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으로 인간의 의미가 정의될 수 없다면, 복음이 위태롭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선언문은 이들 이슈들에 대해 성경과 기독교적 관점으로 답하도록 교회를 무장시키려는 시도"라면서 "교회와 성경공부 모임, 주일학교, 가정,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 교리 문답을 제공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랜덤 총장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때로 힘들다. 과거에도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비열하게 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었다"고 말했다.

로렌 커닝햄 "통일, 영적각성 교회연합이 먼저"

국제 예수전도단(YWAM)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대각성하고, 우리 안의 연합을 먼저 이뤄내라고 조언했다.

커닝햄 목사는 지난달 28일 미국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열린 '세계 선교를 위한 통일 한국' 포럼에 참석해 "사람은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믿음은 항상 시험을 당한다"며 "지금 한국이 영적으로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쁜 소식은 거대한 영적 대각성을 통해 새롭게 부흥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1907년 평양대부흥도 당시 선교사 몇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음을 주었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한반도에 영적 대각성이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폐렴을 크게 앓은 그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포럼 현장을 찾았다. 행사 직후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교회 연합의 필요성을 누차 역설했다. 커닝햄 목사는 "이곳 코나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라며 "한국의 통일 운동가들이 이곳에 모인 것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처음 하와이 코나에 세운 열방대학은 현재 140개국 600여개로 확산돼 젊은이들의 선교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우리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며 "다른 선교단체의 장점이 우리의 약점을 막아주고, 우리의 강점으로 다른 단체의 약점을 채워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르심이나 은사는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며 "검지 하나로 치기 시작해서 점점 열 손가락 모두 사용돼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연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커닝햄 목사는 "남한과 북한의 미래를 생각하면 몹시 흥분된다"며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잘나서야 아니라 하나님에 위대하기 때문"이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젊은세대가 세속적인 대학 교육, 인터넷문화에 휩쓸려 성경을 버리고 살고 있다"며 "숫자로만 따져보면 한국에서 성경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북한에서 성경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모든 가정에 성경이 배포될 때 1907년 부흥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나님에게 기도도 해야 하지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잔칫상' 얹은 김정일의 '역대 최대 핵실험'

북한이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중국을 압박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스 소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핵실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충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시 주석이 설득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미 정부를 대화에 이끌어내는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시진핑은 워싱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힘을 소유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3~5일 중국 푸젠성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첫날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 주석이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정상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시점에 북한이 기습적인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브릭스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두 달 남게 국경분쟁으로 대치해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중도 성사시켰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이날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됐다.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교수는 "북한이 브릭스 정상회의의 개막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타이밍은 의도적"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 중단 등 급진적인 제재를 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첫 공개적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교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와의 교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이른바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필리핀 대만 등이다. 이 중 중국이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 글을 통해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와 모든 교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을 띄운 건 백악관에서 긴급히 소집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뒤였다.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은 불참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의 후 던포드 합참의장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많다"며 "북한이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나 한국, 일본 등을 공격한다면 실질적이고 압도적이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전멸을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말해 국방부가 군사적 옵션의 세부 계획과 이행 방안을 별도



로 마련해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백악관 인근 세인트존스 교회에서 열린 허리케인 '하비' 희생자 추모 예배에 참석한 뒤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두고 보자"고만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4일 오후 11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안보리가 북한 문제로 소집되는 건 지난달 29일 이후 엿새 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는데 그쳤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공급 중단 등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대북제재법이 금지한 물품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성폭행' 종교인에 징역 20년형

인도에서 자신을 따르던 여성 신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유령 종교인 구르미트 람 라힘 싱(50)에 대해 법원이 28일 이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도 NDTV에 따르면 법원은 싱이 저지른 2건의 성폭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뒤 두 형을 별도로 집행해 싱이 20년간 수감되도록 했으며 모두 300만 루피(5천260만원)의 벌금도 납부하도록 했다. 싱의 형량은 애초 징역 10년으로 그의 변호사 등을 통해 알려졌다. 싱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모두 징역20년이 선고된 것이 맞다고 바로잡았다.

인도 치밀라 법원은 앞서 25일 북부 하리아나 주 판치쿨라 법원이 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법원 주변에 모인 추종자 10만여명 가운데 일부가 차량에 방화하는 등 경찰과 충돌해 38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다쳤기에 이날 폭동 재발을 막고자 하리아나 주 곳곳에서 철물경계를 폈다.

법원도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이날 오후 예정된 판결 선고를 판치쿨라 법원에서 하지 않고 싱이 수감된 로타크의 교도소로 판사들이 헬기를 타고 이동해 했다.

교도소 주변에는 수천 명의 경찰이 겹겹이 배치됐으며 군부대도 유사시에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기했다.

당국은 교도소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외부인의 로타크 방문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이 지역 무선 인터넷도 차단했다. 하리아나 주는 이날 모든 학교를 휴교했다. 수도 뉴델리 등 인접 지역에서도 일부 학교들은 소요사태를 우려해 휴강하거나 수업을 단속해 진행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월례 라디오 연설에서 "누구도 믿음을 빌어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면서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 소요를 일으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신의 현신'이라고 자칭하는 싱은 1948년 설립된 신종교·사회복지 단체인 데라 사차 사우다(DSS)를 1990년부터 이끌고 있다. 하리아나 주와 펀자브 주 등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는 DSS는 스스로 6천만 명이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가족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등 성직자로서는 특이한 차림으로도 유명한 그는 마약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대규모 한혈 캠프를 운영했으며, 자신이 주권공으로 출현해 오토바이를 타고 시한약을 없애는 내용의 상업영화 'MSG:더 메신저' 1편과 2편을 제작해 인도내 유명 극장 체인을 통해 개봉하기도 했다.

싱과 DSS는 또 모디 총리의 청결·위생 증진 캠페인 '클린 인디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정치권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싱은 2002년 자신을 따르던 여성 추종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 25일 15년만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싱은 이 외에도 언론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남성 추종자들을 강제로 거세시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4. 윤하영 목사(1889-1956)

윤하영(尹河英 또는 尹夏英)은 1889년 8월 6일 평안북도 의주군 광평면에서 윤윤숙과 김신숙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의주라면 존 매킨타이어에게서 세례를 받은 김진기,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등 의주 청년 4명을 기억하게 된다. 윤하영은 고향 한문서숙에서 한학을 익혔다. 1907년 구성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구성군은 김소월이 태어난 곳이다.

19세 되던 1909년에 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헨리 W. 램피 선교사의 노방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다. 그는 그 해에 의주군 장목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무렵 그는 램피 선교사의 조선어 교사가 되어 고향에 상광교회를 세워 조사가 되었는데, 두릉봉 가산리교회에서 영수로 섬겼으며, 구성군 장로교회 조사로도 섬겼다. 선천 성경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 그는 1916년에 평양 장로교신학교에 입학했다. 이듬해 그는 정식으로 평북노회 조사로 임명되었다.

평양신학교에 재학하던 윤하영은 삼일운동을 맞는다. 1919년 3월 15일에 그는 고향 광평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가 체포되어 평양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출옥 후 그는 평양신학교에 복학하여 결혼한 지 5개월 되던 1920년 11월에 이대영 등과 함께 졸업했다. 윤하영은 1922년 8월 정주에서 열린 평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평북 용천군 용계동교회에서 첫 시무를 시작으로 광화교회와 덕동교회를 섬겼다.

상황

윤하영牧사는 1924년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국 난징에 있는 난징대학에 입학하여 영

반에게 다대한 공감을 주었다. 선전에 거주하고 있던 윤하영牧사는 1925년에 부인은 한국에 두고 홀로 린컨 선편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그 해 9월 24일 상항에 입항했다. 그는 천사도 이민국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고 다음날 상항에 상륙하였다. 미국 동부로 간 그는 1925년 10월에 프린스턴신학교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1929년 5월까지 공부했으나 학위를 받지는 않았다. 윤하영牧사의 민족사랑과 독립운동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 1928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에 대한국민회에 연구



윤하영 목사

세를 납부한데서 볼 수 있다.

라성자유교회

윤하영牧사는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주의 여러 곳을 심방하였다. 1929년 라성에 도착한 그는 라성 자유교회에서 주일 하루를 섬겼다. 1929년 당시 김성권이 본 교회 장로로 재직했다. 윤牧사는 본 교회에서 그 해 6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자유교회 예배당에서 세례와 성찬을 베풀었다. 자유교회는 신한민보에 광고를 내어 부근의 한인 중에 유아세례와 성인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주일 오전에 미리 통보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상항한인교회

라성자유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만찬을 베풀었던 윤하영牧사는 1929년 6월 11일에 상항에 안착하였다. 본 교회는 윤牧사의 설교를 아래와 같이 광고했다. “미국의 프린스턴신학교라면 학이 소아라도 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소개한 후 “시내에 계신 형제자매

들은 물론 부근에 계신 분들도 기회를 잃지 마시고 다 오셔서 심령덕기함을 상패히 맞추어 가소서. 구원이 이 기회에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는 그 달 16일 주일에 상항한인교회 주일예배 시간에 설교를 담당했다. 예수의 진리를 강론하면서 윤牧사는 ‘살 길을 위하여 의를 잊어버리지 말 것’을 대지로 삼아 복음의 참 뜻을 해석하였는데 일반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하영牧사는 귀국하는 길에 상항에 도착하여 며칠을 거주하는 동안 다시 생각하여 본 결과 만일 본국으로 돌아가면 공부를 더 할 기회가 없을 것을 상상하고 귀국하려는 계획을 정지하고 얼마 동안 신학을 더 연구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상항에 온 다음 달인 7월의 3일에 ‘대요 마루’ 선편으로 출발하여 귀국했다.

신의주 제일교회

귀국한 윤하영牧사는 신의주 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고, 본 교회는 크게 성장하여 의산노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교회가 된다. 1933년 윤牧사는 그가 소속한 의산노회의 노

로 선출되었다. 임원교체 뒤 그는 강제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교 연맹’의 이사장과 의산노회 지맹의 이사가 된다.

4월에 평양신학교는 개교하지 못하고, 9월의 개교여부는 이사회 실행부에 일임하였으나 결국은 폐교했다.

윤牧사는 방해법, 라부열, 관란 등 3명의 선교사와 함께 실행부 부원이었다. 그러나 윤牧사는 1940년 이후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신의주 제일교회에서 추방되고, 1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백마에서 은둔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윤하영牧사는 신의주 제일교회에 복직한다. 그는 평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다음 달 신의주 제이교회의 한경직 목사사와 함께 신의주 자치회와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는데 비 기독교인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한다. 당시 조만식 장로와 이윤영 목사 등이 조직한 조선민주당, 김학식 목사를 중심한 기독교자유당, 감리교 목회자를 중심한 기독교민주당 등 기독교계 단체의 정당들은 공산정권에 대항하고 신앙과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정권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북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신의주 지역에도 소련 군정이 실시되면서 종교 활동이 제한되었다. 그런데 1945년 11월 신의주 인근 용암포에서 열렸던 사회민주당 지방대회 장소에 공산당이 동원한 경금속 공장 직원들이 난입하여 행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가한데서 용암포 평안교회 장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신의주 학생자치대가 중심이 되어 5천명이 동원된 신의주 반공학생 사건까지 발생하여 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북한에서 일어난 최초의 조직적인 반공투쟁이었다. 그 해 10월 초 윤牧사는 한경직 목사사와 함께 청년려회 의산연안회 주최 하기수양회에 초청을 받아 김진곤과 최명준 등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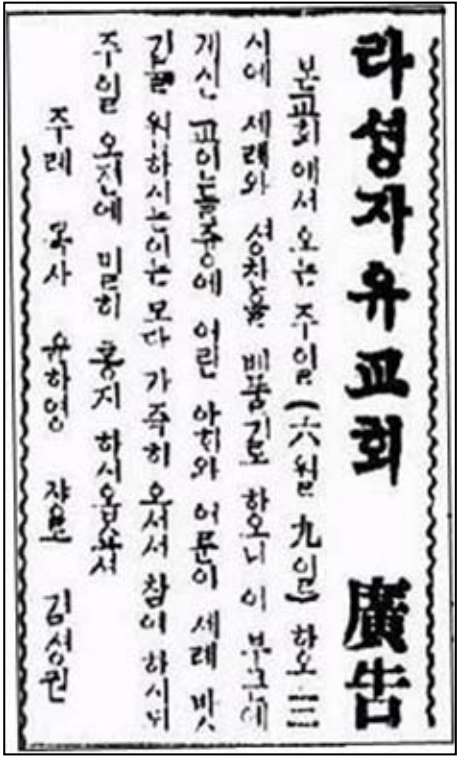
본 수양회에서 강사로 활동한 자는 농촌문제를 강의한 이훈구, 청년문제를 강의한 안대선, 소년문제를 강의한 이교찬, 한글에 관해서 강의한 유창선, 음악에 관하여 강의한 권태호, 강연에 김지웅과 백영엽 등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후 조선총독부의 황민화 정책과 신사참배강요는 집요했고, 이듬해 제 27회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그리고 다음 해 신의주 제이교회에서 개최한 제28회 장로교 총회에서 윤하영牧사는 총회장으

damien.sohn@gmail.com

1925년 상항 도착, 10월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4년간 수학

1929년 귀국 신의주제일교회 담임...1940년 신사참배 반대 1년간 옥살이

한경직 목사사와 함께 기독교사회민주당 조직, 1945년 10월 월남



신한민보, 1929년 6월 6일



신한민보, 1929년 6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되어 교회 정치에 발을 디딘다. 그 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신이 목회하던 신의주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나아가자!’라는 표어로 개최한 기독교청년련려회 의산연안회 주최 하기수양회에 초청을 받아 김진곤과 최명준 등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했다.

본 수양회에서 강사로 활동한 자는 농촌문제를 강의한 이훈구, 청년문제를 강의한 안대선, 소년문제를 강의한 이교찬, 한글에 관해서 강의한 유창선, 음악에 관하여 강의한 권태호, 강연에 김지웅과 백영엽 등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후 조선총독부의 황민화 정책과 신사참배강요는 집요했고, 이듬해 제 27회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그리고 다음 해 신의주 제이교회에서 개최한 제28회 장로교 총회에서 윤하영牧사는 총회장으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빌라델비아 장로교회가 1981년 2월 창립 이래 36년간 시무해 오신 김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캐나다 노회 소속으로, 개혁적 정통 보수신앙의 신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말씀을 바로 세우고 기도에 전념하며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비전 아래, 영적 부흥과 새 세대를 세워 나가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현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소속 목사 또는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혁교단 소속 목사
2. 정규 신학대학원(M. Div) 이상 졸업자로,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3. 만 40~55세(기혼)되신 분
3. 한국어 외에 영어 소통이 원활한 분.
4. 캐나다 또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혹은 영주권 취득 가능한 합법체류자.

● 제출서류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소명과 목사안수 후 목회경험 등 포함).
3. 목회계획서 (목회철학, 비전과 계획, 리더용지 3매 이내).
4.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M. Div) 및 학위증명서 1부
6. 현재 소속 교단 확인서 및 증명할 사본 1부
7.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설교문 포함) 2편
8. 추천서(봉인) 2부(목회자 1인 및 평신도 1인).

● 기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빙여부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제출기한 및 방법

서류제출 마감일: 2017년 10월31일(화)
제출처(등기우편 혹은 e-Mail 접수),
Attn to 빌라델비아 청빙위원회(Joint Nominating Committee)
Korean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
8 Codeco Court, North York, ON M3A 1A2 CANADA
이메일: billjangtoronto@gmail.com
문의처: 청빙위원장 장영일 목사 (416)554-7495



성경도 신앙(39)
청교도의 가정생활

다)자녀들의 잡초 근성을 뽑아내야 한다

자녀에 관하여 예레미야 버로우즈(Jeremiah Burrowes)는 “잘못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별로 소망이 없다. 옷에 염색을 잘못하면 그 염색한 물을 도로 빼내기는 극히 어렵다”고 하였고, 윌리엄 거넬(William Gurnell)은 “종교와 무신론의 차이는 이것이다. 종교는 심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심은 것까지도 죽어 버리는데 반해, 무신론과 반 종교론은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잡초로서 뽑아 내지 않고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함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히 강조하고 있다.

조셉 홀(Joseph Hull)은 “노아 가족 중 함이란 아들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홍수 전에 사람들보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재판의 본질과 목적은 엄벌적이어서는 안되고 교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치유와 개선을 위한 것이지, 처벌이나 파멸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우리는 행동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신경질이났을 때도 다른 사람을 겸손히 대해야 한다“고 함으로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라는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한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4)교회와 가정의 관계.

현대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줄어가고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조차 경건의 능력을 찾기 힘든 현실은 교

들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 이는 자녀들은 한 가정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순결하게 성장할 수 없다. 가정을 교회와 같이 말씀과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듯이, 교회 역시 화목함과 사랑의 돌봄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가야 할 것이다.

나)청교도 교회는 예배내용과 가정의 삶이 연대하는 교육관계이다

현대 교회가 청교도들로부터 더욱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회와 가정에 있는 이런 연대 교육의 부재이다. 청교도들은 주일 저녁이 되면 항상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4. 청교도 자녀교육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배운 건전한 가르침이 가정으로 연결되었고, 가정은 이런 자녀교육을 통하여 사회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 청교도 가정에는 항상 영적인 경건성과 성경적인 삶에 기초를 두는 올바른 교리와 실천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판단과 건전한 마음, 건전한 삶과 건전한 양심을 만든다. 그렇지 않다면 그 교리는 올바른 것이 아니든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청교도들의 교리는 곧 청교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의 보수주의적인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일치성을 가진 교리와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피며 따라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 가장 좋은 기독교 가정

피터 루이스(Peter Louis)는 그의 책 “청교도 묵회와 설교”에서 “참된 경건은 신비한 체험이나 단련된 교양에서 생겨나는 것보다는 진리와 은혜의 신실한 결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경건한 청교도들이 추구해온 진리와 은혜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부

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논술한다. 존 게리(John Gary)는 “옛 영국 청교도(미국교도)의 특성”에서 다음과 같이 편면한다. “청교도들은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가장 좋은 기독교인은 가장 훌륭한 남편이며 아내요, 부모이며 자녀요, 주인이며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교리가 모욕당하지 않고 영화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교회, 국가, 예술과 학문 및 경제생활에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청교도 목사의 권고는 다음과 같았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가정들이 먼저 웨스트민스터 규범을 잘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자녀와 종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역량에 맞추어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일 그들이 일단 이 신앙의 기초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책들을 더 이해력 있게 읽고 설교를 더 유익하게 들으며 더 현명하게 토의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더 굳게 고수하게 될 것이다. 먼저 그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읽고 배우게 하라.

(9면으로 계속)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저자 로렌스 형제는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구고, 계절이 바뀌니까 나뭇잎이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후 40년간 줄곧 이어졌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나이 80이 된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우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은 늘 우리 삶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그 분께 맡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려면 좀 더 솔직하고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행할 때 우리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어쩌면 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서도 막상 죽을 것 같은 삶에 부딪히면 그 두려움과 슬픔을 어떻게 삭여야 할 지 다 잊고 어쩔 줄 몰라 한참을 방황하다 결국은 우리를 내신 아버지께 절규하며 앞드리는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신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말이다.

그렇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어떤 지식도 아닌 계속 자신을 포기해가며 모든 일상이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은 아찔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행동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서두르지도 또 늦장 부리지도 않는 평정하고 고요한 정신으로 하루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자는 또 말한다. 그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고... 주방의 소음들 속에서도 여러 사람이 시끌벅적한 속에서도 그는 골방에 쫘아 앉아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 그분을 앞세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홀로 두는 것을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모든 경건 생활이나 틀로 정해진 기도생활뿐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어서 그분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살다가 죽겠노라고 구별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자. 그래서 살아오면서 많은 세월동안 받지 못했던 싸움은 선물들을 (평화와 능력과 지혜 건강...) 남은 날 동안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는 우리가 되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자녀 죄성 직시, 개혁주의적 기독교교육 해결책 올바르게 제시

징계 목적은 교화적...가정과 교회 분리 않고 연대 교육 강조

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한다든지, 암살범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가족은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든지, 가롯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모두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며 “일부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베푸는 최고의 보물이고 자녀가 받는 최상의 유산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의 손은 그렇게 거칠지가 않다. 그러나 대가족을 부양하는 가정의 부부는 빈번한 자출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들의 수입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청교도들은 자녀의 죄성을 직시함으로 이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기독교교육의 해결책을 올바르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라)징계는 교화적이어야 한다

훈련에 관해 예레미야 버로우즈(Jeremiah Burrowes)는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낼 때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사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진리와 허위를 다루는데도 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존 오웬(John Owen)은 “심판이나

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교회보다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 된 그리스도인들의 각성이 필요함을 청교도들은 알았다. 물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술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 가정과 교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가정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대한 기초라면 교회는 가정의 영적 울타리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에 있어서 교회와 가정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향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정에 지속적인 영적 각성을 제공하며 유지시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할 수 있다.

가)청교도 교회와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돌봄이 있는 영적 공동체 관계다

교회와 가정은 혈연관계가 아닌 믿음과 영적인 측면에서 확장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육신의 부모를 지닐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친척들, 곧 영적 형제자매들을 만난다. 그들은 교회라는 가정에서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다. 목사와 교회의 장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영적으로 자신의 자녀

그날 오전에 들은 담임목사의 설교 내용을 질문하였다. 본문의 내용, 그 안에서 깨달은 것,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자녀들에게 꼼꼼하게 묻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였다. 더하여 자녀들에게 목사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참된 의미를 재강조하면서 주일 저녁 가족 모임을 마무리 하곤 했다.

“참 목사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위대한 키티 민스터의 목사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가정심방을 할 때마다 그가 가정의 자녀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는 성경 교리를 아는 지식을 점검하곤 했다. 만일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부부를 주일 예배시간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는 하였는데 이런 규제를 자유롭게 실행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와 부부와 자녀의 성숙한 모습은 현대 교회에 감동을 주는 부분이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교도들은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고 가정을 교회로, 교회를 가정으로 여기는 경건의 복된 질서를 드러내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곧고 높고 향기롭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강력한 능력으로 확장되어갈 수 있었다.



2017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6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수여자 발표
신청서류 보낼곳

2017년 10월 31일
2017년 12월 17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담임 장준원 목사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web

www.NLChicago.org

e-mail

newlifechicago@yahoo.com

T.847-359-5200 F.847-359-8409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행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영 어 :	목 사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장일기

부끄러운 기억!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한국으로 여행할 때에 일어난 황당한 이 사건은 기억할 때마다 진땀을 흘리게 만든다. 여러 해 전에 귀가하려고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했다. 항공사 직원이 일반석이 아닌 비즈니스석 티켓 두 장을 건네주었다. 황당해서 알아보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시아나 뉴욕 지점장인데 특혜를 베풀었던 것이다. 주일예배 왔다가 출타 광고를 보고 온라인 컴퓨터에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았던 것이다. 과분한 대

접을 받고 편하게 여행을 한 후 인사를 건넸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한 번도 먼저 부탁을 한 적은 없었다. 아버님이 뉴욕을 방문하실 때도 역시 일반석으로 모셨다. 귀국을 위해 케네디 공항에서 나갔다가 근무 중인 지점장 집사님을 만났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쩔 줄 모르도록 감사했다. 난 아직까지 일등석 기내를 구경해 본적도 없다. 내심 속으로 듣든한(?) 뻘이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뉴욕 근무를 끝내고 인천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떠나갔다. 한 두 해가 지났을 때였다. 인천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그 집사님에게 인사를 나누려고 찾아갔다. 그 때는 대한항공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훌

가분한 맘으로 갔었다. 마침 지방출장 중이라 전화로 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직원이 우리 부부의 티켓을 달라고 했다. 이미 탑승수속을 마쳤고 더욱이 대한항공 티켓이라고 했는데도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왔다. 돌아온 직원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 가지고 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 부담 없이 왔다가 또 큰 사랑의 부담을 안고 편안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국 갈 일이 생겼다. 탑승수속을 하려는데 대한항공 부장으로 근무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먼저 보고 반갑게 맞았다. 비즈니스 데스크로 오라고 했다. 줄도 서지 않고 편하게 탑승수속을 해줬다. 뿐만 아니라 라운지 티켓까지 마련해주면서 쉬고 계시면 모시러 간다는 것이었다. 감사했다. 안내 방송을 듣고 탑승하려고 나섰

비즈니스석 탑승구로 안내를 했다. 오늘도 목사가 호강을 하는구나! 기분이 좋았다.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까지 받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석으로 들어섰다. 정중한 승무원들이 상냥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좌석번호가 몇 번인가요?’ 물었다. 27번이라고 대답을 했다. 승무원은 즉시로 ‘아! 그 번호는 일반석인데요?’ 이때 바로 눈치를 찌어야 했다. 그런데 승객인 내 대접에 둔감해진 나는 되레 당당하게 얘기했다. ‘김 부장님이 업그레이드를 했을 텐데요?’ 승무원은 그럼 가서 앉아계시면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다. 난 일반석에 찾아가서 앉았다. 그때까지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김 부장님은 끝말이 없다는 것을... 잠시 후 직원은 돌아와서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얘기했다. ‘네! 손님! 이 자리가 맞다고 하십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굴이 새빨갈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쥐구멍이라

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을... 김 부장은 지점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비행기는 이륙했지만 난 계속 땅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서너 시간이 지나 겨우 가슴이 진정되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앉아있는데 이번엔 비즈니스석에서 식사를 들고 일반석까지 찾아왔다. 가슴은 또 다시 뛰기 시작했고 얼굴도 빨갛게 재발되기 시작했다. ‘오! 하나님! 이 못난 목사가 대접받는 일에 익숙했다가 오늘 큰 코를 다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는 이어졌고 무슨 밥을 먹었는지 도무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10년도 지난 이 부끄러움이 오늘도 생각만 하면 진땀을 흘리게 한다.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눅14:10). jykim47@gmail.com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열린 임현수 목사 환영예배에서 임현수 목사가 간증하고 있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 환영예배

교계지도자, 노회임원 및 캐나다 정계인사 언론인 150여명 참석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는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노회 임원 및 캐나다 정계의 인사들과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현수 목사 환영예배를 열었다. 큰빛교회 담임 제이슨노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환영예배는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다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찬양했으며 피터한 목사가 “오직 주의 은혜로”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임현수 목사가 2년 6개월의 북한 역류생활 중에 받은 연단과 은혜와 비전을 간증했으며 박성규 목사(KPCA 총회장/주님세운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친교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2부 식사 및 친교시간은 김성민 목사 사회로 시작했으며 저녁 만찬을 가졌으며 여러 교계 인사들이 환영사를 하고 임현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자마 설립자 김춘근 장로가 텍사스 린데일로 캠퍼스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마, 텍사스 린데일로 캠퍼스 이전

부지 471에이커 건물 26만8천스퀘어피트

JAMA(대표 강순영 목사)가 지난 8월 초 텍사스 린데일(Lindale)에 위치한 JAMA 글로벌 캠퍼스(Global Campus)로 본부를 이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JJ그랜드 호텔에서 본부 이전 보고 및 감사모임을 갖고 텍사스로 본부를 이전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설명했다. JAMA 설립자 김춘근 장로(GLDI 대표)는 “미국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차세대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캠퍼스가 되는 텍사스 린데일은 주님께서 위탁하신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가들과 특강대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킬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 말했다. 김 장로는 “60-70년대 당시 히피들

로부터 40-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무서운 역사를 직시하고 있다. 하나님 중심사상 영향권에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반면 좌경세력들은 전 세계의 모든 분야로 진출해 타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류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크리스천 문화의 강력한 세력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사탄의 역사와 전략으로 타락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타하는 강력한 세력을 만들기 위한 대학과 훈련의 기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JAMA 새 본부는 달라스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 15분가량 떨어진 린데일에 471에이커의 부지에 자리한다. 이곳에 현재 건물의 건평은 약 26만8천 스퀘어피트다. JAMA는 지난 2016년 12월 15

일 300명의 개인과 400여개 교회의 도움을 받아 부지를 구입하게 됐으며, 현재 건물과 부대시설 수리를 위해 500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순영 목사는 “텍사스의 베이스캠프가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킹덤드림 성취를 위한 역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곳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500만 달러라는 큰 액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비전 성취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감히 요청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자마는 텍사스로 이전과 함께 LA사무실을 이전하게 된다. 김춘근 장로는 “자마가 태동하게 된 곳 그리고 저의 이민역사의 대부분을 함께했던 LA와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는 없다. 린데일로 캠퍼스가 이전하게 됐지만 남가주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역해나가겠다”고 말하고 “해마다 있었던 자마대회는 린데일 캠퍼스를 중심으로 열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문의: (310)995-3936 강순영 목사 <박준호 기자>

제8회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한국내 및 해외...마감 10월까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박창식 박사) 한국언어문화학과 국제언어교육원이 주최 주관하는 ‘제8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이 오는 10월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발전 및 창달에 이바지하고 그 저변을 전 세계에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훈민정음 반포 571돌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공모전을 통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 및 해외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와 공유하게 된다. 응모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며 분량은 레터용지 4면 내외(11포인트, 행간 160%)이다. 응모방법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홈페이지(class.sc.ac.kr/language) 및 국제 언어교육원 홈페이지(language.sc.ac.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원고와 함께 대학응모 전용 이메일(easay@sca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상(본교총장상) 1명(상장 및 상금 백만원 재단 이사장상, 세종학당재단이사장상,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상 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5명(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10명(상장 및 상금 10만원)이다.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순에 하게 되며 본 대학 한국언어문화학과 및 국제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박준호 기자>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수여됩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지/구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춘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하비' 수재의연금 모금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텍사스 휴스턴 지역의 허리케인 “하비” 수재의연금을 모금한다. 마감은 9월 20일까지이며 체크는 교협사무실로 보내면 된다(Check Payable to C.K.C.). 의연금은 휴스턴한인교회를 통해 지역 한인교회들에게 전달된다.

▲문의: (718)279-1414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 수양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년 동문(회장 박성원 목사) 수양회가 10월 2일(월) 오전 11시부터 3일(화) 오전 10시까지 크리스천 리트릿&컨퍼런스 센터(Eddy Farm)에서 열린다. 회비는 개인 20달러, 부부동반 30달러, 자녀는 무료다. 월요일 저녁에는 “목회 철학과 현장 사례 나눔” 주제로 발표시간이 있다. 예약은 9월 11일까지.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문의: (917)353-5477, (718)683-8884

프라미스코회 설립기념 및 김남수 담임목사 40년 근속 감사예배

프라미스코회 설립 42주년 기념 예배가 9월 17일(주) 오후 4시에 김남수 담임목사 40년 근속감사예배와 함께 열린다. 프라미스코회는 1975년 김성광 목사가 맨해튼에서 시작했으며 1977년부터 김남수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해왔다. 한편 24일에는 수석 부목사 허연행 목사의 프라미스코회 담임목사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정돼 있다.

▲문의: (718)

‘2017 밀알의 밤’

밀알장애인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2017 밀알의 밤’이 뉴욕밀알선교단(단장 김자송) 주최로 9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뉴욕장로교회당에서 열린다. “만남, 힐링 그리고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노을’ 멤버 강균성이 초대가수로 초청된다. 입장료는 20달러.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milal.org)에서 볼 수 있다.

▲문의: (917)692-7755, (718)662-8779

씨존 제 71기 컴퓨터 기초반 무료강좌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존(C-Zone)은 제 71기 컴퓨터 기초반 무료강좌를 9월 19일(화)부터 10월 10일(화)까지 4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20분까지 진행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CBSN사장).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 40달러로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또한 포토샵 기초강좌는 9월 5일(화)부터 2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 강사는 양인회 박사.

▲문의: (718)414-4848

두란노 아버지학교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아버지 학교’가 뉴저지와 뉴욕에서 열린다. 뉴저지는9월 16일(토), 23일, 30일 오후 6시, 10월 1일(주)오후 5시 뉴저지시온제일교회(담임 원도연 목사)에서, 뉴욕은 10월 7일, 14일, 21일, 22일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이메일 njfatherschool@gmail.com(뉴저지) fatherschoolnewyork@gmail.com(뉴욕)

▲문의: (201)320-3330뉴저지, (917)217-2897뉴욕



샬롯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예배를 나성균 목사가 인도하고 있다.



제19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19회 미기총 정총, 신임 대표회장 황경일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영현 목사, 이하 미기총) 제 19회 정기총회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역대하20:12) 주제로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미주의 지역교계 대표 뿐 아니라 한국 한교연과 세기종 관

계자들도 참가했다.

30일 오전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헌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황경일 목사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지역공동회장: 동부 이대우 목사, 서부 민승기 목사, 남부 나성균 목사, 중부 심평중

샬롯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담임 나성균 목사 성역40년 기념식도 함께 열려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설립 4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담임 나성균 목사의 성역 40년 기념식이 지난 27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영 머린인 차세대대의 해병대가 될 젊은이들의 기수 입장으로 시작했다.

1부 예배는 콜롬비아 산돌장로교회를 시무하는 오석득 목사의 기도와 본교회의 찬양대 모차르트 곡 “영화롭도다” 찬양 후 노회 대표 홍중수 목사가 시편 37편 3-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임직자와 교우들을 격려했다.

제 2부 임직식에서는 △장로임직: 성기태 전승현 진태형 전오현 △권사 취임: 진재경 박운주 씨가 각각 임직했다.

축하송으로 오페라 캐롤라이나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제라 씨가 오페라 캐롤라이나 전속 피아니스트 로리의 반주에 맞춰 찬양했으며 특히 주기도문을 부를 때는 온 회중이 깊은 감동에 빠졌다.

이어서 본 교회 설립 멤버이며 선임 장로인 전기현 장로가 “섬김을 받으라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 받자”고 권면했고, 콜롬비아 아가페교회 김성훈 목사도 권면했다.

임직패는 4명의 신임 장로와 2명의 권사에게, 그리고 원로장로인 전기현, 전태현 장로, 은퇴하는 정기수, 조동식 장로에게 기념패가 전달됐다.

축사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목사였던 이희운 목사, 샬롯교협 중경

회장인 정지호 목사가 했으며, 임직자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담사에 나선 전승현 장로는 지난 6개월간 열심히 훈련받았음을 상기하면서 모범 장로로 교회를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 3부 본 교회 제 4대 담임 나성균 목사의 성역 40년 기념식에서는 담임목사에 대한 소개 후, 이영 목사(14년간 알래스카 선교)가 깊이 있는 실질적인 권면을 했고 이어 크리스찬타임스 발행인 이윤태 장로, 샬롯교협 회장 박형우 목사 그리고 본 교회와 형제 교회로 수십년 교제해온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의 한일철 목사가 축사했다.

이어서 축하곡으로 50여명으로 구성된 전유니버시티 콰이어의 찬양이 있었다.

광고는 전태현 장로가 축도는 본 교회 제 2대 담임 송영성 목사의 장남 송성섭 목사(남부교회 담임)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나성균 목사는 “모든 자녀들이 교우들과 함께 끝까지 동참한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임직식은 문자 그대로 40년의 고난을 통과한 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모두 같이 다짐하는 뜻 깊은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나 목사는 9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대심방을 통해 “다시 한번 40년간의 감격을 나누고 새로운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갖고 기쁨으로 새롭게 전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목사(수석).

회장단은 뉴욕교계의 목사들로 구성된 사무총장 이재택 목사 △총무 이종명 목사 △서기 김진하 목사 △부서기 마바울 목사 △회계 이창중 목사 △부회계 박정오 목사 등을 지명했다.

대표회장에게 취임한 황경일 목사는 뉴욕 교협과 목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맡은바 임무에 충성을 다해 기도에 부흥하는 회기를 연속해서 이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세기종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상실돼가는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미기총 사역을 집중하겠다”고



뉴저지 목사회 임원들이 지난달 31일 모임을 가졌다

뉴저지목사회 임원회...다양한 사업 결정

뉴저지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 CSO 사무실에서 8월 임원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장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담임)가 주도한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0월 29일(종교개혁기념주일) 오후 6시 티넥 아모리(Teaneck Armory)에서 있을 영적 대각성 집회(주최 뉴저지교협, 후원 뉴저지목사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뉴욕목사회와 탁구 대항전을 매년 갖기로 한다. 내년도 대회는 뉴저지에 유치할 것을 고려한다. △9월 8일(금) 오전 10시 진재혁 목사를 강사로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갖는다(장소: 필그림교회). △9월 25-27일

말했다.

개회예배는 심평중 목사 인도로 기도 송병기 목사, 성경봉독 이방석 목사, 설교 전영현 목사, 크리스찬상 시상, 환영사 황경일 목사, 격려사 황의춘 목사, 축사 원종근 목사, 광고 이대우 목사, 축도 장석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크리스찬상은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이며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 와 이한우 브라질 선교사,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전하는 라후체 목사에 게 수여됐다.

저녁식사 후에는 기도회가 열렸으며 이한우 선교사가 27년 브라질 선교보고를 통해 선교의 열정을 불러 넣었다. 특송은 클로리아싱어즈(퀸즈장로교회)가 했다.

30일 오전에는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인도했다. 마지막 오찬 후에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 유학 중에 한국으로 가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현재 LA에서 통일사역을 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가 한국교회의 통일준비에 대해 짧은 강의

를 인도했다. 미기총은 미주 각 지역의 교협과 기관을 하나로 묶는 대표기관으로 1998년 시카고에서 박희소 목사를 1대 회장으로 시작했으며,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계를 묶는 기관으로는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황의춘 목사)가 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11:00 세백기도: 오전 8: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별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 백 기도회: 오전 8:00 (화-토)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45(월-토)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세백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세백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이대회: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수요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유, 초, 중, 고등부회: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인어 설교)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리 보는 2017 교단 총회]

한기연 인준·종교인 과세... 핫이슈 넘친다

〈1〉올해 교단 총회 주요 의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교단별 총회에서는 통합 출범한 교회연합기구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에 대한 가입 인준 여부와 종교인 과세 및 동성애 정책 등에 관한 교단 정책과 방향 등이 결정된다. 주요 교단들의 총회 핵심 의제들을 3회에 걸쳐 미리 들여다본다.

연합회 등 교계 연합기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일정한 시행 유예 방안을 두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교단 총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주목된다.

국회의 헌법개정 대토론회 일정이 지난달 말 막이 오르면서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교단별 대응책 마련 여부도 관심거리다. 헌법개

정 내용 가운데 ‘동성애·동성혼 허용 문구 삽입’ 여부를 두고 반대 운동을 본격화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활동 동참 결의나 현안 입장 표명 등이 교단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 이미 예상 고신 등 일부 교단에서는 산하 교회들을 대상으로 개헌반대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년 사역자 등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교단 차원의 징계 및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단·사이버 집단의 포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혁 정신 되살리자

올해 주요교단 정기총회는 오는 11일 예상 대선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표 참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교단들은 저마다 재도와, 새 출발을 선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단들마다 목은 과제로 꼽히는 목회자연금제도 개선포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 선교 정책 시행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다룰 전망이다. 예상합동과 기침 교단 등은 신학대 내용과 갈등을 수습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상통합의 연금재단은 최근 자산 4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룰 현의안에는 지난달 출범한 교회연합기구인 한기연 가입 불허에 대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 또 하나의 연합기관이 생겨나면서 불필요한 예산,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임원진이 총대들을 대상으로 한기연에 대한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지 관심거리다.

이 밖에도 ‘지자체 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목회자의 성윤리 및 재정윤리 관련 위원회 조직 및 프로그램 제정’ ‘당회 산하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목회직업훈련원 신설’ ‘교육목사 제도 신설’ 등의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임원 선거에는 총회장 후보에 현 목사부총회장 최기학(상현교회) 목사가 추대될 전망이다. 부총회장 후보로는 기호 1번 정도출(비전교회), 2번 임은빈(동부제일교회), 3번 민경설(광진교회), 4번 림형석(평촌교회), 5번 조병호(하이기쁨교회) 목사가 출마했다. 부총회장 선거에 5명이 출마한 것은 10여년 만이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이현범(유덕교회) 장로가 단독 출마했다.

〈2〉예장합동-통합

합동, 총신대 갈등…통합, 연금재단 해법 주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제102회 총회가 오는 18일 전북 익산시 선거예 회기인 총회에서 5개교 연합회로 개편되는 가운데 연합회 개편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교단 산하 신학대인 총신대와 총회 간 갈등 해결 여부다. 지난해 총회와 총신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70여명의 총대가 총회장소 안으로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101회기 동안에도 총신대 재단이사회 구성을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힘겨루기만 하다 교육부의 관선 이사 파송절차를 밟기도 했다.

‘목회자로서 동성애자의 세례 및 주례에 대한 거절 문제’ ‘이단에 속한 자의 교회 내 추방’ ‘여성 목사 안수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신학적 보수성을 대표하는 교단인 만큼 어떤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이 밖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단적 대응,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을 통한 연합사업 참여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도 예상된다.

총회 첫날 치르는 임원 선거에는 역대 최다 후보가 출마했다. 총

회장 후보로 현 부총회장인 전계현(익산 동산교회) 목사가 단독으로 오는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기호 1번 이승희(대구 반야월교회), 2번 김정훈(부산 새누리교회), 3번 배광식(울산 대암교회) 목사다. 장로 부총회장엔 4명, 총회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총무 후보엔 6명의 후보가 경쟁한다. 선거는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제102회 정기총회는 오는 18-21일 서울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진행된다.

교단의 연금재단 문제는 수년째 ‘뜨거운 감자’다. 전직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 윤모씨의 배임·횡령 관련 고소 건을 비롯해 전직 이사와 관련된 소송이 일반 법정에 6건, 총회재판부에 1건 제기돼 있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총회 임원회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는 간담회를 갖고 법적 분쟁을 끝내고 화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모든 법적 문제가 종결될지

장회의에 합류해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교단장들은 한기총과 한기연의 원활한 통합 작업을 위해 이종승 예장대신 총회장을 통합추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교단 지도자들은 또 각 정당 대표들에게 ‘동성애·동성혼 합법화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한국교회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에게는 민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이 직접 당대표들을 만나 설득해 달라”는 김지연 차세대바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또한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 폐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불가 입장도 전달하기로 했다.

교단장들은 또 미국 의회와 미국 장로교회(PCUSA), 미국연합감리교회(UMC)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철수 부당성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성희 총회장 제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입장을 내비쳤을 때,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의회를 직접 방문해 미군 철수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기도·전도 운동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12일 전국 교회에서 개최되는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 “내가 했던 발언의 진의가 본말전도 된데다 쿠퍼신학의 깊이도 알아 매우 실망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반년 넘게 두 목회자 중국에 수감 중 온성도 선교사·이병기 목사, 탈북자 돕다 공안에 체포

“요즘 들어 아이들이 아빠를 더 찾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픡니다.”

수화가 너무로 전해지는 이나옥(41) 사모의 음성은 축 처져 있었다. 지난 2월 중순 이 사모와 남편 온성도(41) 선교사, 아홉 살배기 쌍둥이 남매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공안에 붙잡혔다. 이튿날, 은퇴 목회자인 이병기(66) 목사 부부 역시 중국 현지 호텔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온 선교사와 이 목사를 제외한 가족들은 일주일쯤 뒤 풀려나 귀국했다. 하지만 온 선교사와 이 목사는 반년 넘게 라오닝(遼寧)성 본시(本溪)의 ‘간수소(拘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에서 내민 이들의 범죄 혐의는 중

교회마다 동성애 개헌반대 서명 속속 동참

내달 100만명 목표...광고, 후보 통해 서명행사 진행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국민주권수립 과정에서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개헌 반대 운동에 개별 교회들도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 각지 교회들은 8월 주일 예배 광고와 후보 등을 통해 개헌반대 서명 참여를 요청하거나 교회내에서 서명 행사를 진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예배 후 광고를 통해 “헌법 개정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구분을 다양한 잡성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서명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동성애에 반대해도 동성애자들은 공흘히 여겨 끌어안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교회 후보에도 적극 참여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홈페이지 주소(hisland.org)를 기재했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는 서명 행렬이 이어졌다. 가정사역공동체 총무 양서원(50·회사원) 집사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 결합을 통해 이뤄지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강력 반대한다”며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서혜선(49·주부)씨는 “개헌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선 함께 온 자녀들에게 동성애의 폐해를 설명하는 부모들도 보였다.

한 남성은 등에 ‘동성애·동성혼 반대’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고 있

었고, ‘성 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다’라고 쓰인 종이를 붙인 눈에도 띄었다. 동성애를 한다고 반드시 에이즈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서명운동에 항의하는 일부 성도도 보였다. 양 집사는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성경 말씀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옳다”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날 10개 온누리 캠퍼스에서 성도 2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재훈 목사도 설교에 앞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부천 참빛교회(김윤하 목사), 서울 서진교회(백철호 목사) 등 전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서명 운동 동참을 독려했다.

이경희 동반연 사무국장은 “9월 전국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온라인 서명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계에 공문을 발송해 한국교회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개헌의 문제점을 알리며 서명 동참을 독려하고 있으며, 교회나 어린이집 경로당 병원 등 단체단위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달 서울 오펜교회, 인천 검단중앙교회,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교회, 부천 온누리교회, 경북 경산중앙교회 등은 이미 주일 예배 후 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서명지를 발송했다.

이 사무국장은 “전국의 각 지역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모임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헌반대 서명자 수는 2일 기준 온라인 22만여명, 우편 접수 서명자 6만5000여명으로 3일 각 교회 집계분이 반영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성명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광선회 목사)는 30일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0개 교단과 군선교연합회는 성명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잘못된 가치의 결과”라며 군대 내 동성간 항문성관계나 추행이 발생할 경우 법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제정사건을 기각하고, 국회에서 발의한 92조의 6 폐지 법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가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병영 내 동성애 및 성 군기 문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형법 92조의 6에 규정된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이라는 내용이 현실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아 올바르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10개 교단 등은 각 교단장과 총무(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아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헌법재판소, 국방부 등 주요 국가기관에 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현역 군인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교계는 병역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이 법조항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항이 군인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고신·대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10개 교단과 선교연합이 참여했다.

신천지, 해외로…중소도시로

예장합동 이단대책 세미나

“신천지는 지난해 해외에 91곳을 개척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펼쳤습니다. 국내에선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이단(사이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 전문위원 신현욱 목사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빛꽃로 성북교회(이태희 목사)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총회이단대책세미나’에서 신천지의 최근 동향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신 목사는 “기독언론의 적극적인

한기연-한기총 12월까지 통합 추진

교단장회의...엄기호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도 적극 동참 약속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5일 서울 중구 코리야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12월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연 조직 구성과 한기총 선거결과 등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성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은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46개 교단을 중심으로 한기연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기연이 오는 12월 5일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인데 진보와 보수교단이 함께 하는 연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기총도 한기연 창립에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지난달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결과가 잘 마무리됐다”면서 “한기총이 대표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신임 대표회장이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말미에 참석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한기총도 교단

“임보라, 이단적 경향” ...임 목사 “본말전도 불쾌”

예장합동 등 8개 주요 교단 소속 이단대책위 회견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임보라 섬돌할린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성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대신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중로구 예장합신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목사의 성경해석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8개 주요교단이 임 목사의 이단적 경향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8개 교단 이대위원장은 임 목사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 소속된 타 교단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성을 연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로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요 8개 교단이 임 목사의 성경해

석 및 주장에 대한 관찰,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8개 교단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을 제외한 주요 교단으로,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대위원장 모임에서 채택한 보고서 및 의견은 각 교단에 발송된 상태다. 오는 11일 예장대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 총대들은 토론을 거쳐 임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국교회회는 1개 교단이라도 이단성을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이단지정 관례를 갖고 있다.

진용식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임 목사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 목사의 사상이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8개 이대위원장은 기장에 질의서를 제출했지만 공식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교토소 선교칼럼 (28)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삶의 폭풍-상실과 치유

저는 교토소에서 사역을 하며 슬픔과 상실감, 또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며 해결해 나갈지를 상담하며 저는 재소자들에게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밝도록 합니다. 저의 상담의 세 가지 요소는 폭풍, 교훈, 적응(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상실과 상처, 아픔 그리고 혼란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폭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토소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불어 닥치는 폭풍으로 인하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폭풍에 휘말려서 오랜 세월을 고통과 아픔에 잠겨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폭풍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강건해져서 자신이 배운 교훈으로 폭풍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돕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삶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초점을 두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함과 동시에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폭풍이 잠잠해지며 상처도 고통했던 영혼이 그 소용돌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용기,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자 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더니 다윗의 예를 들어가며 시편을 유창하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 어느 목사님 못지않은 훌륭하고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밤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밤은 너무나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살아 자신의 은사를 숨기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후 그는 자기의 감방에서 다시 한 시간 정도 성경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밤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계속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가끔 교토소 안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의 한 사람 바로 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히 보게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했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폭풍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처와 슬픔 속에 잠겨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죽음 후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소망으로 바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밤은 성경 말씀을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구절 한 구절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에 천국에서 만날 어머니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폭풍을 잠재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레이노 현상

찬바람에 노출될 때 손가락 끝에 심한 통증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모씨는 3개월 전부터 새벽에 일할 때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가락 끝에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사라지지만 다시 찬바람에 노출되면 통증이 재발했다. 처음에는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김씨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증상이 레이노 현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레이노 현상(Raynaud's Phenomenon)은 찬 기온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진동 등에 대해서 혈관이 과민하게 반응해서 수축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찬 기온에 노출될 때 심한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말단 부위로 산소공급이 차단되면서 파랗게 변하고 더 심하면 창백해진다. 대개 더운 물에 말단 부위를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다시 정상 피부색을 되찾게 된다.

레이노 현상은 일반인들에게 약 3~5퍼센트의 빈도로 발생하는데 젊은 여성들에게 조금 더 흔하다. 이 질환은 관련 질병 없이 발생하는 원발성(일차성) 질환과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동반돼서 발병하는 이차성으로 나누어진다. 원발성 레이노 현상은 찬 공기가 어떻게 혈관을 비정상적으로 수축시키는 지 그 기전이 불분명하고, 가족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밝혀진 유전자는 없다. 빈도로 볼 때는 일차성이

이차성보다 더 흔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증상의 정도도 약하고 상대적으로 치료에 반응을 잘한다.

단순히 손발이 찬 것인지 레이노 현상인지는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물어보면 대개 구분할 수 있다. 레이노 현상에서는 손발이 파랗게 변하거나 창백해지고 통증이 심하게 온다.

레이노 현상이 자주 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증상이 악화될 때는 더운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겨드랑이와 같이 따뜻한 부위에 넣어서 추위를 녹인다. 또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레이노 현상을 악화시키므로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콧물이나 알레르기 증상에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나 편두통약 등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소 심리적 스트레스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긴장을 푸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차성 레이노 현상은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심한 경우는 고혈압 약제로 흔히 사용되는 칼슘길항제를 사용하면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추운 겨울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겨울 동안 약물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다.



홈리스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홈리스들에게 오찬을 대접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맨해튼 할렘서 '숲 키친'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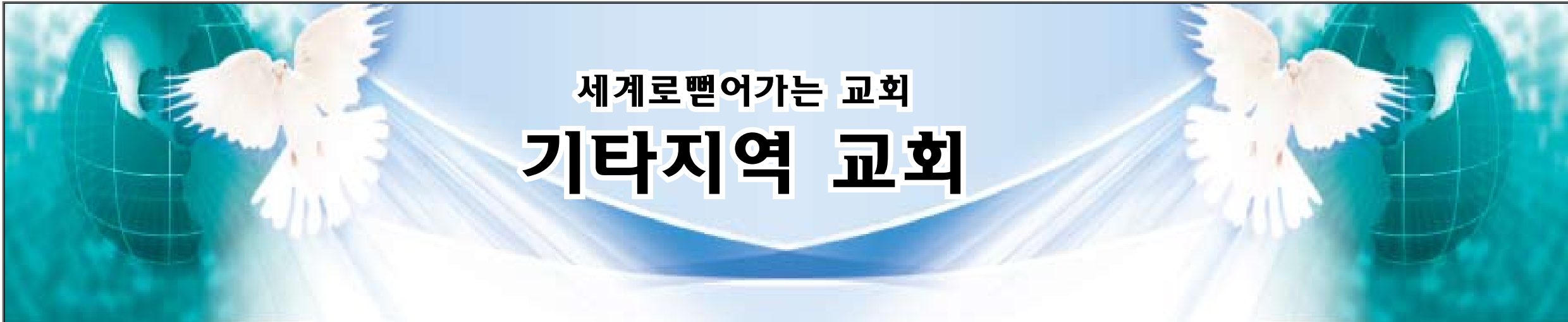
퀸즈장로교회가 지난 29일 맨해튼 할렘에서 2017년 마지막 하기 단기선교인 '숲 키친' 행사를 가졌다. 김성국 담임목사는 출발에 앞서 "우리는 이곳에 이민자로 왔지만 또 선교사로 온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는 그 권세와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소명을 갖고 열심히 헌신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 교회 협력선교회인 브니엘 선교회(김명희 선교사)가 Soul Saving Station Church에서 매 화요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을 후원한 것.

행사에 앞서 단기선교 헌신자들은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후 그레이스선교무용단이 부채춤과

난타를 공연했다.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숲 키친'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진기웅 쿠퍼 대학부 전도사가 "For me?"(딤후 2:3-6)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예배 후에는 콜링에 응한 15여 명의 결신자들을 위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숲 키친'에는 40여명의 단기선교 단원들이 헌신했으며 60여 명의 홈리스들에게 푸짐한 오찬을 대접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mvchurch.org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bjwls.org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장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전 9:00(화-금) 토요일: 오전 8: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8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8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bjwls.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bjwls.org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저녁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e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선교 펴기

스페인 말라가와 프랑스 마르세이유

Alaba a Jehová!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류 집중 성경보급사역은 스페인 말라가와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라가에서는 새벽에 입항하는 여객선 승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USB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동안 마르세이유에서 성경 2,700 패키지를 나누어 주었고 말라가에서는 성경 패키지 350개와 USB 3,000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 작은 사영리 전도지를 3,500장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약 15일간 사역이 이어지면 더 많은 양의 성경 말씀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무슬림들에게 나누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사역에는 한국인 3팀과 미국인 2팀, 이집트, 튀니지 팀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 사역을 섬기면서 한인교회들이 지중해권 무슬림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역에 임하셨던 분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사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슬림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받아가는 손길들과 정답게 인사를 받아주는 무슬림들을 통해 적지 않은 위로와 기쁨이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대륙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미접촉)종족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에 놀랄 따름입니다.

바르셀로나 테러

지난 8월 17일 바르셀로나 가장 변화가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있었습니다. 흰색 승합차가 지그재그로 500m를 돌진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신문과 TV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년간 테러가 없었던 스페인에서 또 다시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7월말에 프랑스 니스에서 시작된 차량 돌진 테러는 유럽 전역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두려움을 많은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를 주동한 사람들 중 6명이 모로코 출신이었습니다. 차량을 빌린 사람은 스페인령의 멜리아 출신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멜리아는 저희가 사역하는 말라가를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령 도시입니다. 또한 지난 2주간 사역한 프랑스 마르세이유 출신의 모로코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IS가 약화로 인해 약 300명 정도의 모로코 출신 요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주도 아래 이번 테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지중해 연안은 테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악한 세대를 대항하여 참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세우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마르세이유로 가기 전 일어난 일

올해는 저희 가정이 함께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1,600km되는 마르세이유를 자동차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10년 된 승합차를 구입했는데 말라가 외곽에 있는 고속도로 옆 큰 주유소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쉬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 패키지를 전달하고 돌



아오는 중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 않더니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 도로가에 세우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라디에터에 구멍이 나 있었고 물을 부었더니 그곳으로 다 흘러 내렸습니다. 카센터에 가져가 라디에터를 교환했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엔진이 망가졌고 자동차 구입 가격의 1/3이나 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수리를 맡기고 렌트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무슬림들이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마르세이유를 지나는 시기에 그곳에서 서서 성경 패키지를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에 선교지로 떠나기 전 생기는 일들은 방해라기보다는 더욱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역 중 있었던 이야기

말라가 항구에 급증하는 유럽 무슬림 여행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차량이 모이는 시간에 그곳에 가서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차에서 쉬고 있었는데 차 번호판을 보니 네덜란드에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된 성경 패키

지를 권했더니, 남편이 무슨 종교인지를 물었습니다. 개신교이며 칼빈주의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궁금한 것을 약 30분간 물어보았고 답했습니다. 그의 질문 중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성경을 보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몇 곳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즉시 그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질문들은 많은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의 부조리와 구원론의 불확실성은 더욱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세이유에서 사역한지 이틀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알제리로 떠나는 4명이 타고 있는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랍어와 프랑스어로 된 성경 패키지를 권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아들이 기쁘게 받아서 옆에 앉은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건네고 돌아서는데 아들이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다가갔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뒷자리에 앉으신 어머니에게도 패키지 하나를 주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3개 패키지를 왼손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전달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무슬림 가족이 성경 패키지를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가족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말라가 여객 터미널에서 한 무슬림 청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경(Injiil)이라고 말하고 권했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개신교이며 신약성경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흔쾌히 감사의 말을 하고는 성경패키지를 받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루실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서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여류사역기간에 16개 지중해 항구에서 전달되어진 성경 패키지와 USB, 전도지, 예수영화 등을 통해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3. 계속해서 함께 동역할 사역자들을 보내주소서.
4. 유럽 선교의 관문 역할을 위해 NGO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돕는 이들과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지게 하소서.
5. 라디에터와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가 잘 수리되고 비용들이 충당되게 하소서.
6. 언어의 진보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남사현, 이현진(예향, 이안, 케빈) 선교사 lfchrist@gmail.com)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크리스천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위해 ‘관계적 평화교섭(Relational Peace building Initiatives)’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단체 ‘관계적 평화교섭’의 이사 마이클 솔루터 박사와 정치국장 제라미 아이브 박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열린 ‘세계 선교를 위한 통일 한국(Mission United Korea)’ 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제안했다.

남북, 통일한국 미래 모색 위해 만나야

솔루터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의 체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러다 전쟁이 나거나 분단 상태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방식이 될 수 없다”며 “한국의 자본주의, 북한

해 한국과 북한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민간 분야에서 정부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 모여 남북의 농업 분야 협력 등과 같이 덜 민감한 이슈부터 다루자는 것이다. 이들의 제안은 북측주의 진영에서도 수긍할 만한 새로운 대화 테이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참석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외 선교계, ‘통일선교전략회의’ 구성기로

이번 포럼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회장 황성주)가 마련한 행사로, 남북 통일을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 중인 북한 사역자들과 한국교회 관계자, 국제선교단체 리더 등 국내외 25개 단체 대표자 5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합을 다짐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남북, 성경에 기반한 제3의 길 모색해야”

의 공산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양 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솔루터 박사는 “남북 간 올바른 평화를 위해, 통일된 한국을 위해, 무엇보다 통일된 한국의 미래상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에 기반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평화교섭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월드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영국의 크리스천 싱크탱크 ‘히년센터(Jubilee Center)’를 설립한 솔루터 박사는 한반도 통일 과정은 물론 이후 들어설 대안체제에 주목한다. ‘관계적 평화교섭’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적 가치의 핵심을 일반인도 받아들이기 쉬운 세상의 언어로 풀어낸 용어다.

아이브 박사는 “막대한 상황에 처한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입증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공약한 상황에선 예방적 타격 등의 방법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수차례 분쟁 당사국과의 교섭에 참여해 보니 당사국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성과가 있었다”며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도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방법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

이들은 나흘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통일을 위한 기도와 연구, 교육, 훈련에 힘쓰고 한국교회와 선교계 간 협의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KWMA가 장구 역할을 하는 ‘통일선교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예수원 대표 벤토레이 신부가 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를 맡기로 했다. 토레이 신부는 “통일을 위해 각자 사역 방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순종하며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서로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는 교단 등으로 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체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통일을 위한 기도와 연구,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사회 및 통일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여러 단체와 교회별로 진행 중인 평화기도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성도가 함께 정기적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연합과 활동을 위해 내년에 미국 하와이 코나에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본사방문

임형만 선교사 (아르헨티나)

국기원 프로선수가 선교사로 순종하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한국 국기원 태권도 프로 선수로 활동하다 국제챔피언 벨트를 잠시 내려놓고 관광객 아르헨티나에 들렀던 임형만 선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헌신해 오고 있다.

그는 2015년 임파선 4기 선교를 받고 한국에서 11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한시도 선교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완쾌된 몸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교자인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1년여 사역을 이어오다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으로 가던 중 LA를 방문했다. 지난 17일 본사를 방문한 임 선교사는 자신이 겪었던 투병생활과 사역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대한 부족함을 느껴 목사안수 받는 것을 미루다 2015년에 비로소 안수를 받았다.

“이제 저의 삶은 새롭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속한 23개 주에서 부르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임 선교사. 그가 지금까지 이어온 사역들은 순회 집회와 교회개척, 성전건축, 인디오선교, 이동도서관, 교도소 사역, 목회자 및 지도자 수련회 등 수없이 많다.

순회 집회 사역
그가 순회 집회를 하는 데는 그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자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선교 동원 사역
선교 동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다.

선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제자화 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게 하는 데 있는데 이 일에 동역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다. 이런 자원들이 힘을 모아 흠어져 있는 인디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곳 선교현장의 실상은 대물림 받은 가난. 믿음의 부족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쉽게 도와주기만 하면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후에 일어날 성령의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기도 한다.

이동 도서관에서 이동 신학교까지

이동 도서관과 이동 신학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목회자 및 지도자들은 거의 가난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회와 더불어 의식주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비량 목회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학력이 낮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수준이 낮아 목회가 이중부담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배우려는 자세가 소극적이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은 가르치며 바른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여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고 한다.

이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순회 집회’와 ‘이동도서관’을 만들었고 하나씩 돌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동 신학교’의 꿈이 있음도 내 비쳤다. 이 일을 위해 임 선교사는 책 구입에도 열심을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구제선교, 건강세미나, 교도소 선교, 목회자 및 지도자 수련회 등 끊임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임형만 선교사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이어가게 하셔서 앞으로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믿기에 하나님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아르헨티나에 종합선교센터 건립도 꿈을 꾸고 있다”고 귀띔했다.

임 선교사는 LA방문이 처음이다. 5박6일의 일정으로 LA를 둘러보며 이곳에서 신학교 동문들과의 만남과 후원교회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가진 후 21일 한국으로 출발했다.

임형만 선교사와의 연락은 eliasim1@empas.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순회집회로 현지인에게 복음전파, 이동도서관으로 지도자 양성 구제, 건강세미나, 교도소선교, 목회자 및 지도자 수련회 계속

그가 교회를 다녀본 기억으로 유치원시절과 군 생활 때로 기억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다. 마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날 이후 새벽기도를 나가게 되었고 예배시간마다, 기도시간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임 선교사를 부르며 선교의 사명을 안겨주셨다고 고백한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했다. ‘거저 받은 달란트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 직업이 태권도인데 무료로 가르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라고 반문하니 “전지전능하

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그때부터 시작된 무료 태권도 강습! 학생들은 몰려왔지만 시도 때도 없이 끼니를 걸려야 했고 그러다보니 영양실조로 아위고 위장병, 허리디스크, 무릎 관절염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육신은 병들고 가진 돈은 없고... 막막하기 그지없을 때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후 고 김충일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한 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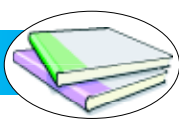
만한 이유가 있다. 아르헨티나 교회들을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져 비운을 맞고 있었다. 현재 아르헨티나 현지 교회와 인디오 교회의 상당부분이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실상을 죽거나 병들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의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순회 집회를 시작했다. 곳곳을 찾아 순회하며 교회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올바른 교회로 세우기 원함이

이러한 실수는 훗날 선교사와 현지인, 그리고 인디오를 향한 모든 사역이 무로 돌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임 선교사의 지론이다. 10년 전에 맨발로 와서 도움을 청했던 인디오인들이 10년 후에도 맨발로 와서 동일한 도움을 청한다면 그 선교는 실패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러기에 임 선교사는 선교에 동원된 이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 선교지의 영혼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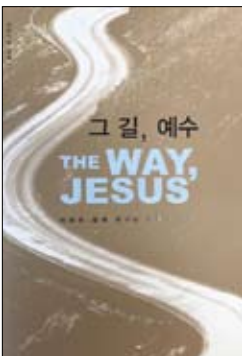


‘그 길, 예수(The Way, Jesus)’ -마태복음 강해집

저자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남성수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집 ‘그 길, 예수(The Way,

Jesus)’가 북스원에서 출간됐다. ‘마태와 함께 떠나는 영혼의 산책’이라는 부제로 발간된 본 도서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자

신이 볼 수 있는 만큼만 얻을 수 있기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역사

와 간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마태복음은 영적인 보화창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진정

한 왕으로, 참된 메시아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심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신약성경의 출발점이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감격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의 가슴 벅찬 기대가 사라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남기고 싶어서”라 말하

며 “무엇보다 천지의 주재이시며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 밝

혔다.

본 도서는 Part 1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Part 2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Part 3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Part 4 승리로 오신 예수님 등 4

‘마태와 함께 떠나는 영혼의 산책’ 부제

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남성수 목사의 저서 ‘그길 예수’는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에제르 사모 힐링 아카데미

“목사, 때려치세요!”
하던 사모가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 일시: 10월 2일(월)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 장소: JJ 그랜드 호텔 (주소: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 Tel: 213-272-9309)
- 등록비: 1인당 30달러(중식 및 책 포함)
- 강사: 이희숙 목사
▷약력: 서울사대부고 졸업(1958년)
이화여대 약학대학졸업(1962년)
휴스턴신학대학 목회학석사(1987년)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2001년)
국제복음주의협회에서 목사안수(2014년)
크리스천비전신문 ‘신앙에세이’ 6년간 연재
- 문의: (213)500-2186 정한나 사모, (310)920-9893 신미경 사모, (818)970-8070 이희숙 목사



- 주최: 세계복음선교회
- 후원: 비전복음방송 & 크리스천비전신문사